SW 신원이엔지
대표 김 종 인
TEL:(042) 823-2713
FAX:(042) 823-2714
H·P:010-5455-7591

大田투데이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384호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청양 구기자 재배농민, 중국산 시판 강력 반발

비타민하우스 분말 제품 홈쇼핑 판매돼 생존권 위협
복영수 농협조합장 단식 투쟁… 내일 수입저지 집회 나서

최근 청양구기자가 대대적 홍보를 통해 구기자의 소비가 증가하고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산 구기자를 이용한 분말 제품이 TV와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청양구기자 재배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식품전문업체인 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는 중국 티베트산 구기자를 이용한 분말제품 '더 퓨어 고지벨리'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7월 19일 홈앤쇼핑 TV를 통해 중국산구기자의 우수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또한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과 전국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는 전략이어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청양구기자농협에서는 어렵게 마련된 청양구기자의 홍보와 판로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력한 저지에 나섰다.

복영수 조합장과 농민대표 등은 "중국산구기자의 공개적 홍보는 곧 청양구기자의 말살책"이라며 비타민하우스 업체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서울에 위치한 비타민하우스건물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복조합장은 "지난해 구기자 가격의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큰 출혈을 해가며 청양구기자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가격이 정상화 되고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할 시점에 난데없이 중국산 구기자를 이용하여 어부지리 이익을 보려는 것은 청양구기자를 죽이려는 흉계이며, 상도의 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절대 묵과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청양구기자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재배농민과 관련기관 및 청양인 무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배농민들은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땀 흘리며 재배한 햇구기자가 수확을 시작하는 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다"며 "국내 굴지의 건강식품업체가 국내 건강식품 생산 농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돈에 눈이 멀어 중국산 수입에 혈안이 된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양구기자농협에서는 청양구기자 지키기를 위해 중국산 구기자와의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복영수 조합장의 단식투쟁과 더불어 오는 26일 서울로 상경하여 비타민하우스 업체 앞에서 '청양구기자 수호 및 중국산구기자 수입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한약재 농민들과 함께 중국산 수입저지 서명운동과 불매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양=정상범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단식농성 격려

안희정 등 시민들 광화문 집회현장 잇따라 방문

김홍장 당진시장과 송전선로 ·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들이 지난 20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격려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단식농성 돌입 첫 날부터 당진한우협회를 비롯한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광화문 현장을 방문해 김 시장과 범대위 소속 시민들의 농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으며, 재경당진향우회 등 출향인사들의 발걸음도 계속되고 있다.

농성 3일째이던 지난 22일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제종길 안산시장 등 충남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자치단체장들도 광화문 농성현장을 방문해 김 시장 일행을 격려했다.

특히 충남도에서도 같은 날 허승욱 정무부지사가 집회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농성 나흘째인 23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직접 김 시장과 당진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농성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렇게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려가 이어지며 단식농성 나흘 만에 광화문 단식농성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당진=최근수 기자

국립철도박물관 공모방식 배제… 과열경쟁 최소화

국토부 "올해 안에 합리적 방안 마련 후 추진"

정부는 국립철도박물관 입지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추진 중인 국립철도박물관 입지선정은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올해 안에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117년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국 철도기술 경쟁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2014년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2015년 11월부터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대상으로 후보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1곳의 지자체에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활동에 나서면서 향후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 시 지자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고 이를 심사 · 평가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철도 · 교통 · 박물관 ·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철도박물관의 건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 입지요건,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선정 절차 및 방식, 박물관 건립 이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방식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연내에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이 그동안의 국내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 고취는 물론 외국 정부와 기업에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만큼, 관련 지자체에서도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국익관점에서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맞춤형 카풀 앱 서비스 실시

한밭대 도시공학과 벤처기업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도명식 교수가 연구실 창업의 형태로 설립된 벤처기업 '라이드'가 개발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맞춤형 카풀 앱 서비스'를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카풀 서비스가 가진 안전, 매칭, 카드 결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기관내(inter-company)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풀 앱으로 국내외에는 사례가 거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관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카풀 앱 서비스인 만큼 프로모션 기간은 다르지만 세종 국책연구단지는 서비스 개시일인 지난 22일부터 8월말까지 이용할 때마다 던킨도너츠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트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Play 스토어'에서 '라이드' 앱을 다운받고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원하는 운전자('타세요')와 이용자('태워 주세요')가 라이드 앱에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기관내 희망자와 매칭되는 시스템으로 서로 상대방을 모르는 기존의 카풀 서비스와는 안전과 매칭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맞춤형 앱 서비스이다.

한편, 도명식 라이드 대표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2014년부터 3년 연속 등재되는 등 교통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최적 카풀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당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토지주택연구원(LHI)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전 검증을 거치면서 기존 서비스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했다"면서 "라이드는 주차, 교통혼잡, 미세먼지와 CO2 배출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인 대안으로 공유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정복 기자

"반기문 · 문재인 초박빙 접전"

<리얼미터> 반기문 20.6%, 문재인 19.4%, 안철수 11.7%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21일 발표된 7월 3주차 주중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각각 20.6%와 19.4%로 집계돼 격차는 12%p차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매일경제 · MBN '레이더P' 의뢰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1,517명(무선 8: 유선 2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중집계에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의 경우 반총장이 '친박실세 공천개입 녹취록' 논란이 확산되며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9%p 내린 20.6%로 문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1위를 유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교육현장을 방문하고 자신이 제안했던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출범 관련 보도가 이어졌으나 0.4%p 내린 11.7%로 3위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3%p 반등한 6.5%로 4위를 이어갔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0.8%p 오른 5.7%로 5위,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0.2%p 상승한 5.1%로 6위를 기록했다. 이어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4.2%, 김부겸 더민주 의원과 새로 조사에 포함된 손학규 더민주 전 고문이 각각 3.7%, 이재명 성남시장이 3.3%, 홍준표 경남지사가 2.6%, 남경필 경기지사가 2.1%, 원희룡 제주지사가 1.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1%p 감소한 10.0%.

이번 조사는 18~20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스마트폰앱(SPA) 및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걸기(RDD)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전체 9.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 일간 표본오차는 3일간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김동섭 의원 주관 '공공도서관-서점 멤버십 포인트제' 추진위원회 결성 공공도서관의 이용실적을 지역서점의 매출과 연계하는 도서관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서점 멤버십 포인트제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위원회 결성은 대전광역시의회 김동섭의원 주관으로 2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공도서관 - 서점 멤버십 포인트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김동섭의원은 22일 '공공도서관 - 서점 멤버십 포인트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정책도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천안시의회 의장단, 민생 현장방문 나서 지난 21일 민생 현장방문에 나서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의회, 발로 뛰는 의회 구현에 나섰다. 이날민생 현장방문은 전종한의장, 유영오 부의장, 인치견 총무환경위원장, 황천순 건설도시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민생 현장방문에서는 기존 관공서 방문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민생현장과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를 비롯하여 천안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애인 종합체육관, 미래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였으며, 시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이용자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병석 의원 "부모 학력, 재산, 직업 안써야 공정경쟁"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서갑 5선)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청년들이 부모의 스펙과는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입사지원서에 부모의 학력, 재산, 직업 등을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관련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14일 부모의 학력, 재산, 직업 등을 모든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와 함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은 최장 3개월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미명아래 과거 10개월이던 청년인턴기간을 지난해 5개월로 줄이면서 채용인원을 늘렸다"고 이를 비판했다.

이정복기자

아산시 강훈식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각 부처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 보호하는 법안

강훈식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21일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 및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부처별 예산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를 시행중이지만, 실제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과거 상향식 예산편성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모든 세부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기재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회 예결위에 보고하고 있으나, 예산심사 대상의 핵심 중 하나인 예산지출한도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이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과 예산요구서, 기금별 지출한도 내역과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기재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도로, 철도 등 SOC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10조678억 원을 4,225억 원 증액하면서 대구 지역예산이 3,064억 원 증가(72.5%), 경북 지역이 2,528억 원이 증가하는 등 정부가 총선을 겨냥해 특정지역에 예산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충남의 경우 1,66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 전체 증감액 대비 39.4%를 차지했고, 전북과 전남도 816억 원, 143억 원이 감액됐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각 부처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예산편성과 선거를 의식한 특정지역의 예산몰아주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윤기식 의원,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대책 촉구

학교 우레탄 트랙 제거를 위한 교육부 예산 지원 촉구

대전시의회 윤기식 의원(동구2,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불거진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납 등 유해 중금속이 발견되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우레탄 트랙 제거를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최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전체 104곳 중 64곳에서(최저 2.7배인 243mg/kg에서 최대 36.5배인 3,283mg/kg)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2012년 이후 설치된 29곳 중 6곳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뮴의 경우 3개교에서 검출되었으나 2개교의 경우 기준치 미만인 5mg/kg, 4mg/kg가 측정되었으며 1곳의 학교에서만 기준치의 2.1배 높게 검출되었다.

대다수 우레탄 트랙에서 발견된 납의 경우 뇌와 중추신경계통의 위해를 통하여 정신 및 행동장애 위험은 1.6배, 조울증 위험은 2.6배 높게 나타나 그 위험성이 크게 문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식 의원은 "현재 산술적으로 우레탄 트랙을 제거하는 데 최소 6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라며,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국무총리가 조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을 통하여 조속히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양승조 의원, "우병우 민정수석 자진 사퇴해야"

양승조 의원(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진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처가 땅 매각의 진경준 검사장의 '알선'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몰래 변론' 의혹 등의 주인공인 우병우 민정수석이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수석의 "모른다. 아니다. 검찰이 불러도 모른다. 아니다 밖에 없다는 기자간담회 발언은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인 것"이라며 "결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직위에 맞지 않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언사다. 이 정도면 자격상실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승조 의원은 "민정 수석이 본인의 일로 의혹과 해명, 부인의 덫에 갇혀, 이미 더 이상 현재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직책 수행이 어려운 민정 수석의 자리는 결코 대통령에게도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니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기자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 · 투명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선거관리위원회-대전시, 온라인투표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 위한 제도 마련 등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안철상)와 대전광역시(시장-권선택)는 지난 22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의 공정 · 투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무관심 속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수의 의사결정권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활용하여 입주민이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두 기관이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조례에 온라인투표서비스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온라인투표서비스의 활성화를 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그 동안 공직선거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민간선거 분야까지 확장시킴으로서, 사회 저변의 갈등 해소와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기술 · 행정적 인프라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정환기자

홍성군의회 '홍성 인구 늘리기' 적극적 시책 주문

김헌수, 박만, 방은희, 이병국 의원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 요구

[설명]사진왼쪽부터 김현수의원님, 박만부의장님, 방은희의원님, 이병국의원님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22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홍성군의 시 승격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제일 먼저 질의에 나선 김헌수 의원(홍성읍)은 "시 승격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 가장 가능성 높은 방법이 홍성읍 인구가 5만명을 넘는 것"이라며, "홍성읍 인구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시 승격과 원도심공동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만 의원(은하 · 결성 · 서부)도 "현재 인구증가 시책은 온누리 상품권 3만원 지급이 전부"라고 진단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온누리 상품권 지급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법과 관내 대학생을 상대로 주소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방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집행부 인구증가 시책 중 '홍성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정책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하며, "대상자를 관내 군민으로 한정하지 말고 도내로 확대해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이병국 의원(홍북 · 금마 · 갈산 · 구항)은 "홍북면 인구가 2만명을 넘었으므로, (홍북면의) 읍 승격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홍북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은데 장소와 프로그램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수가 적어 주민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을 조속히 홍북면에 투입해 신도시의 인구증가를 가속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군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선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은 "집행부는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금 지원, 신규 전입세대에 대한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지원액과 지원방안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최진우기자

daejeontoday.com

이상민의원, 등록금 인상억제 <고등교육법개정안>대표발의

이상민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은 22일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직년3개년도 평균물가상승율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를 직전 3개년도 평균물가상승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민 의원은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의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인데 대학등록금은 한해 천만원 가까이 되고 있어 대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부담이 날고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조사에 의하면 가계의 실질 대학등록금 부담액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크고, 정부의 교육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대학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법은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에서 1.5배까지 올리되 다만 등록금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위원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돼 학생 · 학부모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며, 최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 평균이 5퍼센트 정도임을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억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3년평균 물가인상율 평균 1.5배를 3년평균 물가인상율 평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법통과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금산군 방우리 주민 연결도로 즉각 개설 요구

"환경단체의 희생양… 지역 발전 · 생존이 짓밟히고 있다"
환경단체 회원 부적절한 언사… 명예훼손으로 고발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뿔난 방우리 주민 30여명이 지난22일 오전10시 금산군청 정문 앞 주차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져 화제가 되고있다.

금산군민이면서 전북 무주생활권에서 살고 있어 승용차로 부리면까지 45분, 금산군청까지 1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 32가구 54명 소외된 주민들의 한맺힌 외침이었다.

지난 40여년간 정부나 금산출마 정치인들의 숱한 공약이 나왔으나 환경보존과 예산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못해 주민들은 고통과 불편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다. 무늬만 금산군민 이었던 것이다.

지난 2011년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고 충남도의 2012년 방우리종합발전계획 12개 단위사업 계획 수립이 지지부진했으며, 2014년 충남도는 사업추진 전제조건으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합의 의견을 도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방우리 종합 발전계획에 환경단체와 행정관계자, 이장 등 10명으로 구성해 운영해오다가 최근 회의록 공개를 통해 드러난 지역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환경단체 위원들의 주민폄하, 막말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적벽강권역사업을 위한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보완 용역 자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간을 대상으로 계획해야 함으로 주민 위주로의 시설물 설치는 필요가 없으며 주민에게 과도한 희망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병조 금강유역환경회의 협동처장은 "숲을 가꾸는 것도 발전으로 볼 수 있다며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반대(다리개설)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또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법령상 방지사항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례로는 개발방지가 불가능함으로 계획을 막으면 20년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열린 회의에서도 허재영 위원장은 "방우리가 무주로 편입된다면 수통리와 연결도로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연결도로를 생각해야 한다는 모 위원에 대해서 "방우리 발전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을 개발론자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단체의 부적절한 언사에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이정표로 삼기위해 방우리 마을은 희생양이 되고 있고 20년을 더 희생시키고 방우리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단체 세 사람은 주민 앞에 사죄하라"며 주민폄하 막말논란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25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60여년 만에 군청을 두 번째 와본다는 박모(여,79)씨는 군청이 멀어서 오기가 어려웠다고 말하며, 병원 한 번 가려면 왕복 택시비가 4만원인데 "환경단체의 반대로 도로개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왔다"고 집회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방우리 주민도 금산 주민으로 살게 해 달라"고 연결도로 개설을 촉구하며 "방우리 발전 가로막는 환경단체는 지역발전협의회를 사퇴하라"는 환경단체 규탄 집회에서 주민들은 4대강사업 재검토 요구 특위에 참여했던 당시 허재영 공동위원장이 또다시 방우리 지역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것은 '4대강 특위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방우리 설재욱 이장은 '방우리 주민이 드리는 호소문'에서 "일부 환경단체 몇 명에 의해 방우리 발전과 생존이 짓밟히고 있다"고 비난하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우리 삶을 위해 후손을 위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왜곡된 환경단체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 설 모씨(65)는 "주민 너 나 모두가 원하는 연결도로 개설이 환경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다 밥 먹고 사는 인간인데 사람이 우선 아니냐"고 반문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눈치 보며 사업 추진 못하는 도지사와 군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집회는 대부분 수 십년간 방우리에서 거주해 온 토착 원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를 주도했다.

몇 년 사이 전입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경우 '땅투기 세력'으로 보는 환경단체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부 환경단체 위원들은 연결도로 개설 반대의 논리로 외지인의 땅투기 목적의 난개발 우려를 제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대에 막혀 무산된지 6년.

충남도의 방우리 종합발전계획 12개 단위사업 계획이 수립 이후 5년.

충남도가 사업추진 전제조건으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을 요구해 운영된지 2년.

공회전을 거듭하던 방우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단단히 뿔이 난 방우리 주민들이 환경단체를 규탄하며, 직접 개설을 촉구하는 거리집회에 나섬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금산=손광우기자

스마트 팜 확대 보급 협력의 발판 마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최길성)가 22일 세종두레농업타운에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장동현 SK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을 축하했다.

기념식은 ▲세종센터 1주년 성과보고 ▲세종두레농업 타운 개장식 ▲지역전략산업 에너지 IoT 관련 전기농기계 ▲맞춤형 영농정보 제공 솔루션인 新농사직설 전시 ▲미래농업 벤처 및 여성창업 벤처 등 센터 보육기업의 주요 성과사례 전시 등이 진행됐다.

또한 창의인재존에서는 로봇코딩 체험 교육, 고용존에서는 모의면접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세종시, 김제시, 군산시, 등 9개 기관은 이번 기념식에서 새만금부지에 세종형 스마트팜 및 6차 산업 모델의 확산 보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세종형 스마트 팜의 확대 보급에 협력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센터는 지난 1년간 '농업과 첨단기술이 만나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는 창조경제 선도도시 세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ICT 기반 창조마을 확산, 미래농업 벤처, 여성 및 지역특화 스타트업 발굴, 미래 창의인재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창조경제, 창조농업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여건에 맞는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에 앞장 선 세종센터의 1주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에 걸맞도록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세종센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길성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세종센터는 농업에 ICT를 접목한 첨단농업형 창조마을 조성과 스마트팜 확산, 미래 농업 벤처육성과 지역 특화 스타트업 발굴 · 육성까지 창조경제 확산의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했다."며 "앞으로 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서부발전, 폐탈질촉매 재활용기술 상용화

10년간 동일한 조건하에서 양해각서 효력 유지

한국서부발전(사장 조인국)이 지난 22일 환경부 산하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이하 "재활용사업단")과 폐탈질촉매 내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했다고 밝혔다.

폐탈질촉매 재활용 기술'은 기존에 매립 · 폐기되던 폐탈질촉매에 함유된 텅스텐, 바나듐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원료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로 탈질촉매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제거를 위해 투입하는 암모니아와 질소산화물의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체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태안발전본부는 향후 3년간 폐 탈질촉매 전량을 제공하고, 재활용사업단은 이를 상용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10년간 동일한 조건하에서 양해각서 효력이 유지된다.

태안발전본부 김경재 본부장은 "두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기술정보 공유 · 협업을 통해 정부3.0 적극 이행 및 고부가 유용자원 활용기술 상용화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를 전량 재활용하여 연간 약 230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석탄재를 활용한 광물섬유 제조기술도 개발 중이다.

또한, 공익성 온배수 양식장 조성 사업 및 태안지역에서 발생하는 굴 껍데기를 석회석 대체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및 폐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태안발전본부는 전기집진기, 탈황설비, 탈질설비 등 최신 환경설비운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95~99.9% 수준까지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발전소로서 국내 전력생산량의 약 6.2%를 담당하고 있는 서부발전의 핵심 사업소이다.

태안=김정한기자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시행… 대대적 홍보 추진

요양기관 현장방문 등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중 생산규격 단위 약제 급여목록이 개정(2015.12.9)되어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 등에 대대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21일부터 9월 초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율 모니터링을 통해 미참여 기관에 대해 안내문 발송 및 유선안내, 현장방문 등 1:1 맞춤형 밀착홍보를 시행한다.

아울러, 심평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 업무포탈 등 온라인 매체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 삽입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 대한약사회 · 청구프로그램업체와 20일~21일에는 한국제약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경청 ·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속한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국 9개 지원을 홍보지역거점으로 지정하고, 지원별 시 · 도 의약단체,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교육 · 설명회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도 추진한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생산규격 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시행으로 10월 1일부터는 삭제된 구(舊) 보험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 착오로 조정 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에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 기자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이완섭 시장 수상 영예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방자치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을 수상 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이완섭 시장이 지방자치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경영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장,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이 시장은 특유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굵직한 현안사업을 해결해 환황해권의 중핵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산의 역동적인 미래 발전을 더욱 앞당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 중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산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해 서산 비행장 민항유치, 서산 대산항선 철도 건설개발 등의 추진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의 전기를 마련한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또 지난해부터 65개의 우량 기업 유치,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 조성,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신성장 동역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서산시의 비전을 담은 통합브랜드, 농특산물 브랜드, 대표 관광자원 9경 · 9미 · 9품 개발 등 서산시 가치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힘써왔다.

특히 서산 대산항과 중국 룽청시 룽앤항간 국제여객선의 취항으로 서산시를 여객과 물류과 공존하는 국제물류허브항으로 도약시켰다는 점도 이 시장이 거둔 빼 놓을 수 없는 성과다. 서산=김정한기자

당진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당진시가 지난 21일 한국매니페스토운동실천본부 주관한 '2016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07년부터 시작해 매년 열리고 있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청렴, 일자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해소, 주민참여, 소식지 등 7개분야로 나뉘어 전국 126개 기초자치단체 307개 사례가 접수되었고, 1차 서류 심사후 2차 그룹별 현장발표 형식으로 경연이 펼쳐졌다.

당진시는 일자리분야에서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꿈을,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을 제공하는 함께 일하는 고용을 주제로 발표였으며, 철강네트워크 추진, 당진형 3농혁신 추진. 국내외 투자유치, 고용여건 개선 등 지역 여건을 살린 사업 내용을 소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진=최근수 기자

한화L&C, 가족 갯벌체험활동 진행

지난 7월 23일 토요일에 한화L&C 세종사업장(사업장장 류기현, 이하 "한화L&C")와 세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백기, 이하 "복지관")이 함께하는 『가족 갯벌체험활동 "패밀리가 떴다"』가 전북 고창만돌갯벌체험장 일대에서 지역 내 가족과 인솔자 등 총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패밀리가 떴다" 프로그램에서는 전북고창만돌갯벌체험장 체험 및 고인돌 박물관 방문 등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을 만끽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패밀리가 떴다"에 참여한 가족들은 "갯벌체험을 통해 가족이 함께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하고, 다음에도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신청하고 싶다"고 전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화L&C가 2012년부터 매년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마을잔치, 가족갯벌체험, 한가위 온정나눔잔치, 김장나누기 진행 등 세종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계획한 "지역주민이 365일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한화L&C는 지역 내 따뜻한 나눔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정복 기자

●동 정●●●

주간 업무회의

박용갑 중구청장= 25일 오전 8시 30분 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주간 업무회의'에 참석.

관내 무더위 쉼터 점검

장종태 서구청장= 25일 오후 2시 관내 무더위 쉼터를 점검.

장마철 쓰레기 일제대청소

박수범 대덕구청장 = 25일 오전 7시 비래골 보호수 앞에서 열리는 장마철 쓰레기 일제대청소 참석.

市 맞춤형 의료관광에 중국 대규모 유커 몰려와

8월까지 총6차례 1000여명 방문

대전시(시장 권선택)와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는 중국 유커 단체 의료관광객 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제1차로 160명이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000여명이 대규모로 대전을 방문한다.

지난 22일 대전을 방문한 중국 단체 의료관광객은 대전시가 중국의 지역방송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홍보설명회 등을 통해 소개한 대전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중국 현지 지역 방송사가 지상파 홍보 광고로 모객하여 송출한 유커들로서 7~8월 여름방학을 이용 부모와 청소년이 동행하여 대전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차 인천항을 통해 입국, 대전으로 이동하여 대덕구 오정동 화정초등학교 대강당에서 한국 학생들과 청소년문화교류 행사를 갖은 후 과학공원 음악분수 관람과 으능정이 문화거리 등 관광을 하게 된다.

▲2일차 에는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서 안과와 치과, 청소년 검진 등을 받고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뮬레이션 체험, 국립중앙과학관 관람, 유성온천 족욕장 등을 체험한다.

▲3일차 에는 계족산 황톳길 걷기와 국악 관람과 악기 체험 등 대전의 과학과 관광명소 등을 둘러보는 한류 의료관광을 체험하고 출국하게 된다.

22일 의료관광 단 환영과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행사에서 화정초등학교 박종용 교장은"한국과 중국은 옛날부터 오랜 기간 우의를 다져온 나라로, 오늘 두 나라를 짊어질 학생들의 만남은 경사스러운 날이라며 서로 편지도 교환하고 다양한 생활방식을 알고 이해하며 존중하면서 세계를 향한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측 대표 산동방송국 리우러 소기자단 단장은 대전의 과학과 문화에 대한 체험활동 기대에 아이들과 부모님이 먼 길을 왔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다."며 답례 소감을 밝혔다.

시 안철중 보건정책과장은 "중국 유커의 방한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으나, 지방에서 의료와 문화 등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대전의 전통문화와 과학, 의료 등 체험위주의 콘텐츠를 융합한 한류 의료관광 패키지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홍보 전략을 펼쳐 더 많은 단체 의료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며 자신감을 내 비쳤다.

이영호 기자

대전대덕우체국, 개국 20주년 맞이 감사이벤트

"최고수준의 우정서비스 제공"

대전대덕우체국(국장 한우향)은 다음달 1일 개국 20주년을 맞아 우체국 이용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1996년 대덕구 문평동에 터 잡은 대전대덕우체국은 지난 20년간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고객의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지역 내 물류 산업 및 친서민 금융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대전대덕우체국은 개국 기념일을 맞아 첫손님, 20번째 손님, 81번째 손님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다과를 제공한다. 아울러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33일간 우편·예금·보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개국 20주년 기념 사은 행운권 이벤트」행사를 진행해 추첨을 통해 90명의 고객들에게 제습기, 청소기 등 행운 가득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한우향 대덕우체국장은 "이번 행사는 대덕구민 여러분의 우체국 사랑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많은 분들이 우체국을 방문하시어 행운도 누리고 서로가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람으로 보면 스무 돌은 성년이 된 것으로 대덕우체국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역민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메신저로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대전 효문화진흥원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선발인원 총 40명 8월 8~12일까지 신청 접수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오는 10월 개관예정인 「효문화진흥원」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총 40명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효문화 진흥에 열의를 가진 자로서 연간 주말과 주중에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관련계통 경력자나 공공기관 자원봉사자 유경험자등을 우대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신청서 접수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로 시청 노인보육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check3552@korea.kr)로도 신청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의 시정소식이나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선발은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상위 120%까지를 선발하고, 2차 심사위원회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시 노인보육과(042-270-4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효문화진흥원은 2012년도 5월 보건복지부 전국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245억 원의 국·시비 예산을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이곳에서는 효연구, 효교육·체험, 효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전이 대한민국 효 메카도시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관 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효문화진흥원의 성공적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청년층바리스타 양성교육 수료식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22일 둔산동 문화커피제과 교육원에서 수료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층 바리스타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바리스타 양성교육은 지난 5월 17일 개강해 10주 동안 교육생 전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커피역사 ▲에스프레스 이해와 추출 ▲질 좋은 우유 거품 내기 등 체계적인 실기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수료생들이 실기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으로 취업 연계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실업률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구는 지난 2011년부터 청년층의 취업훈련 일환으로 '커피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개설, 148명이 수료하고 그중 135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82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중구, 간접흡연 폐해 예방·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으능정이거리서 금연캠페인 전개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3일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 예방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으능정이거리 일원에서 금연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올해 상반기에 1차 금연교육을 받고 명예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성모여고 등 관내 5개 고등학교 명예금연지도원 등 170여 명이 참여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금연 패널 전시와 함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흡연의 해로움을 알리고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춤했던 흡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인 뿐만 아니라 흡연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금연성공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박용갑 청장은 "금연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금연캠페인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추억과 함께 하는 여행 프로그램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소장 문명근) 지원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장인국)은 지난 21~22일까지 한남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앵강다숲마을, 보리암에서 '추억과 함께 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IBK에서 후원하는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방문해 자연을 감상하고 배우며 동시에 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는 친환경 여행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작업장에서 작업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작업장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행과 체험활동을 통해 친밀감 회복을 유도하며 나아가 장애인 직업재활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프로그램을 지원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미희 주임은 "장애인 친구들과 생태나누리 체험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다소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대덕구 첫 관광안내지도 제작 '눈길'

"역사·문화·관광 대표도시로 발돋움… 행정적 역량 집중"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대청호와 금강, 계족산 황톳길, 회덕향교 등 다양한 지역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한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대덕구에 따르면 다양한 대덕구의 역사, 문화, 레저, 관광자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발간해 배포에 들어갔다.

'대덕의 숨은 매력 찾기'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대덕구 관광안내지도는 민선 자치 시행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작됐다는 점도 그렇지만 박수범 대덕구청장 공약사항인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관광안내지도는 휴대가 간편하도록 78㎝?54c크기의 24단 접지형태로 제작됐다.

앞면에는 대덕구 전체지도를 일러스트 디자인으로 구성해 대덕구 주요 관광지 위치를 알기 쉽게 표현했고, 뒷면에는 테마별로 대덕구의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안내했으며 맛집을 비롯한 전통시장과 숙박업소 등의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관광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관광지도에 소개된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는 총 3개 권역(충효에 역사문화벨트·계족산 에코힐링벨트·대청호 로하스벨트)에 6개 코스로 구성해 관광객이 대덕의 역사와 자연,레저 명소를 빠짐없이 즐길 수 있게 했다.

대덕구는 이밖에도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발맞춰 대덕 역사·문화벨트를 탐방하는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천년고을 대덕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소책자도 제작해 관내 학교 및 청소년센터 등에 배포했다.

박수범 구청장은 "대덕구는 대청호와 금강, 계족산, 회덕향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레저시설을 비롯한 역사·문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만 그동안 이를 한 데 묶어 관광자원화 시키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었다"며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과 이를 반영한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계기로 대덕구가 대전의 관광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 관광안내지도 및 소책자는 관내 각 주민센터에 비치돼 이용할 수 있으며 대덕구 문화체육과(☎ 608-6733)에 별도로 신청하면 무료로 직접 받아 볼 수도 있다.

김태선기자

daejeontoday.com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특별기획전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시민천문대(대장 최형빈)가 사)한국과학관협회의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전시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16년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2016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은 국내의 탁월한 과학업적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선정하여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전하기 위해 현재까지 31인의 과학기술인이 선정되었으며 명예의전당 헌정인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진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특별전은 헌정인물별 특색 및 주요업적을 다양한 작가들의 상상력과 결합하여 재창조한 대형 일러스트 및 헌정인물별 주요업적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눈에 볼 수 있는 과학기술사 연대표가 전시되며, 관람객의 헌정인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돕고자 헌정인물별 주요업적 관련 스티커 부착체험이 운영된다.

대전시민천문대를 비롯한 전국의 3개 과학관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과학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시행된다.

동구, '천사의 손길 행복+' 기탁식 가져

주민사랑네트워크 미숫가루 전달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난 22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동구 주민사랑네트워크(대표 김제홍)의 '천사의 손길 행복+'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동구 주민사랑네트워크 김제홍 회장(70)은 무관심과 생활고로 실의에 빠진 홀로노인 및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여름철 건강식으로 미숫가루 1.5㎏ 400여개를 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건강식으로 찹살 ,보리등6가지의 국산재료로 손수 만든 미숫가루를 동구청 및 탈북자가족,시니어클럽,한자녀 더갖기운동본부,경로당등에게 34년째 기부 의손길을 펼치고있다.

김 회장은 추석이면 햅쌀과 손수 짠 참기름 ,들기름 등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하고 있으며 어버이날에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부드럽고 드시기 쉬운 카스텔라를 무더운 여름에는 체력을 보충 할 수 있는 미숫가루, 미역튀김, 고추튀김 등을, 구정 때는 찹쌀, 수수, 조, 콩, 팥 등 오곡과 참기름, 들기름 등을 홀로 사는 어르신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 및 쪽방촌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34년째 이어오고 있다.

김 회장은 "자신도 젊은시절 차비가 없어 몇십리길을 걸어 다녔으며 추운겨울 연탄불도 없이 남의집 창고에서 잠을 자는등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 한다"며 "어려움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남을 위해 좋은일 을 할때가 가장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는 계속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영어마을 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유성구 1년간 장서 2.7배 증가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 23일 지족동 어린이영어마을도서관에서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진행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인형극 및 북아트, 책갈피 만들기, 도서기증, 영어DVD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됐다.

어린이영어마을도서관은 영어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화도서관으로 지난 7월 개관했다.

구에 따르면 개관 초기 4,000권이었던 영어도서는 기부 및 신규 구입 등 꾸준한 장서확충 노력으로 현재 10,657권으로 2.7배 증가했으며, 또한 파닉스, 영어영화상영, 크리스마스 파티, 할로윈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체 활성화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총 1만 8천여 명, 일평균 75명의 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전국 매니페스토 일자리부분 우수상 수상

서산시, 여건 맞는 타깃 기업 유치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업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높은 평가

서산시가 '2016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렸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민선6기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는 '서산시 여건에 맞는 타깃 기업 유치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협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발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의 악재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자리 창출 관련 6개 시장 공약이 고른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시는 민선6기 2년 동안 석유화학 및 자동차산업 등 시 여건에 부합하는 타깃 기업 유치 전략으로 65개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1,49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외자유치 1개사, 국내 투자유치 2개사를 통해 1조 9천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협업기능과 전담직원 전문성 강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3,081명이 일자리를 찾았으며 매년 취업률이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시민들과 약속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천여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라며 이번 성과에 대한 열매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채찍으로 생각하고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아산시 기업인협의회 취약계층 후원협약 체결

아산시는 지난 21일, 아산시청에서 아산시기업인협의회(회장 구연찬)와 지역사회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산시기업인협의회의 회원기업 중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낸 6개 기업인 ㈜현진종합물류(대표 김연환), ㈜삼아인터내셔날(대표 채홍용), 세연푸드(대표 이승민), ㈜숲으로벽지(대표 이우영), 늘만나식품(대표 김인섭), 천안중앙요리제과제빵학원(대표 김선희)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업 및 업체 고유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아산시 행복키움지원단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아산시 기업인협의회는 관내 1,600여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구연찬 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공헌 참여의 통로를 확립할 수 있게 된 뜻깊은 계기로 생각되며, 관내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그날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시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공헌활동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러한 충실한 민 · 관협력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보리 · 밀 정부 보급종 신청 접수

보리 291톤 · 밀 20톤 공급계획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은 금년 가을에 파종할 보리와 밀 정부 보급종 311톤을 확보하고, 이를 농업인에게 공급하기 위해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시 · 군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인상담소 또는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을 받아 종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보리와 밀 보급종은 철저한 재배관리를 통해 생산한 후 정선 및 검사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합격된 우량종자로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고 발아율이 높다.

금년에 공급하는 정부보급종은 청보리(영양보리) 175톤, 쌀보리(제안찰쌀보리) 78톤, 겉보리(올보리) 38톤, 밀(금강밀) 20톤으로 파종기 이전인 10.1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품종별 공급가격은 겉보리와 청보리는 20㎏ 포대 당 소독된 종자는 27,220원, 소독되지 않은 종자는 25,790원이며, 쌀보리는 20㎏ 포대 당 소독된 종자는 27,850원, 소독되지 않은 종자는 26,420원이다. 또한 밀의 공급가격은 20㎏ 포대 당 소독된 종자는 28,780원, 소독되지 않은 종자는 27,350원이다.

기타 보급종 신청 · 공급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리 · 밀 품종별 특성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시 · 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 충남지원(041-541-6646, 041-540-4133)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테크노밸리 기업체들 도시녹화운동 관리협약 체결

아산시가 22일, 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체 중 (주)한화, (주)이녹스, (주)상진, (주)니프코코리아, (주)톱텍 등 5개사와 도시녹화운동 관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아산시와 협약한 기업체들은 녹지관리(제초), 시설물관리(벤치페인팅), 공원청결관리와 더불어 도시녹화운동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입주기업체 박종서 협의회장은 "공원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직원들이 이용할 공간을 스스로 가꾸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공원을 가꾸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명수 산림녹지과장은 "아산테크노밸리 내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광장, 녹지 등 약 42만㎡의 대규모 공원 녹지가 산재되어 관 주도의 관리에 한계가 있어 민간(시민)이 참여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사회공헌활동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더 많은 기업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딸기육묘상 관리요령 교육 실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재배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고온기 딸기 안전 육묘상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시험장 장원석 연구사를 강사로 초빙해 장마기 이후 고온기가 지속되는 기후조건 하에 딸기육묘 중 발생하기 쉬운 생리장해 및 병해충을 예방하고, 자가육묘 중에 있는 딸기 우량묘 생산기술을 농가와 공유하기 위한 이론교육 및 현장컨설팅으로 진행됐다.

장원석 연구사는 "육묘가 농사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 양질의 묘를 생산하는 것이 성공농사를 좌우한다"며, "배지수분상태, 철저한 병해충관리, 충분한 묘 생육기간, 물주는 횟수 및 시간 등을 알맞게 처리해 활력을 좋게 하고, 수경재배의 경우는 매뉴얼에 따른 적정양액 제조 사용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화성면 농암리 유만조씨 딸기 육묘포장를 방문해 현재 묘소질을 진단, 앞으로의 관리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딸기의 생육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영농상담으로 농가의 기술수준을 높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청양군은 23농가, 5.4ha 규모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타 작목에 비해 자본회전율이 좋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 앞으로 재배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정상범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 기능장 60회 기능사 4회 수시 2회 실기시험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엄주천)는 다음달 27일부터 9월11일까지 시행하는 2016년도 국가기술자격시험 기능장 제60회및 기능사 제4회, 수시 제2회 실기시험원서를 25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실기시험 원서접수종목은 가스기능장 등 22종목, 가스기능사 등 83개 종목이며 미용사(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신설되어 최초로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이원화(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현지에서 체점하는 종목을 먼저 1차 발표일(9.23)에 발표하고 중앙체점 또는 복합형 종목은 2차 발표일(10.7)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www.hrdkorea.or.kr)이나 대전지역본부 홈페이지(http://hrdc.hrdkorea.or.kr/hrdc/daejeon) 대전지역본부 전화(042-580-9131~9139)로 안내받을 수 있다.

송병배기자

남성 육아휴직 '아빠의 달' 특례 놓치지 마세요

16년도 2분기 남성 육아휴직 · 전년 대비 67.7% 증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최근 남성의 육아부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6년 상반기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1.6%, 충남지역 남성 육아휴직자는 32.3%(86명) 증가했으며, 특히 천안지청 관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67.7%(109명)로 크게 상승했다.

이 같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가는 ① 일 · 가정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육아와 가정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② 아빠의 달 제도 개선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 근로자도 아내와 별도로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는데, 남성 근로자의 소득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일명 '아빠의 달' 특례는 지난 '14년 10월부터 도입했으며, '16년 1월부터는 특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는 현재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6년부터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더 지급('아빠의 달') 받을 수 있다.

아빠의 달 특례는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 '15년도 1분기 212명 → '16년도 1분기 529명 활용(전년동기 대비 149.5% 증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16년 상반기에 관내 606개소 사업장과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독려하였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5,000여 명에게 '아빠의 달' 특례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

특히 지난 21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하나마이크론 등 관내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 18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고, 남성 근로자가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고용환경 분위기 개선을 위해 기업의 노력을 당부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영역이 아니며 아빠의 육아분담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이 당연시 되는 고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일 ·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가철 채소가격 기상 맑음

지난주 기점으로 하향 안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농산물유통정보(KAMIS) 도매가격조사 결과 최근 폭염과 장마의 영향으로 상추나 깻잎 등의 채소 가격이 일시 상승한 바 있으나, 7월 중순을 기점으로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산지작업이 회복되어 출하량이 증가해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상추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50.2% 하락했고, 깻잎은 34.3%, 풋고추는 23.7%, 양배추 18.8%, 오이도 9.0% 하락했다.

송병배기자

(042)538-3030

"2016 경제총조사 성공적 마무리"

원활한 조사 진행의 주역인 450만 사업체 및 조사요원들에게 감사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약 450만 국내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한 「2016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경제총조사는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규모 및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11년을 시작으로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경제총조사는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을 포함한 정부 8개 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존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낮췄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인 다사업체의 경우 지사별 사업실적 자료를 본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1기업 다사업체조사(본사일괄조사) 방식을 강화하였다.

경제총조사를 완료 한 후, 조사내용 검토, 집계 및 분석작업 등을 거쳐 잠정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하고, 확정결과는 내년 6월에 공표하며 최종 보고서는 2017년도 10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소규모 사업체부터 대기업체까지 사업체 운영이나 창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하여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별 특성항목들을 통해 얻은 조사자료들은 서비스산업 혹은 프랜차이즈 산업 등 주요 산업과 소상공인 및 여성, 벤처사업체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가맹본부, 직영점 및 가맹점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는 등 자영업자가 창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통계청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기업별로 번호를 부여하는 기업등록부(BR: Business Register)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기업등록부 구축을 통해 차기 경제총조사를 행정자료 기반의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추진해 현장조사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조사 대상인 450만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투입된 2만 명 이상의 현장 조사요원 및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기업등록부를 비롯한 통계정보들이 작게는 개별 사업체들에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순천향대, 미래 정보보안 전문가 발굴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해킹 및 방어 책임질 청소년들 양성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미래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 해킹 및 방어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14회 순천향대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포스터 참조)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상에서의 해킹 대응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관련 능력을 촉진시키는 한편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참신한 정보보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14회 순천향대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은 전국 중고등학생에게 참여 기회가 열려 있으며, 신청은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8월 10일 오후 10시가지 온라인(http://yisf.sch.ac.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예선전은 온라인을 통해 오는 8월 12일 밤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6시간동안 진행되며, 예선 통과자에게는 8월 21일 순천향대에서 열리는 본선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 페스티벌 홈페이지(http://yisf.sch.ac.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한밭교육박물관 '8월 토요박물관학교' 운영

한밭교육박물관은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로 학생들의 잠재 능력 계발 및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2016년 8월 토요박물관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 토요박물관학교는 13일(토), 27일(토)에 운영된다. 유아 및 초1~2학년은 컬러풀 다트판 만들기 및 가죽 필통 만들기 체험을 한다. 이를 통해 한 땀씩 시침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소근육활동으로 뇌발달을 촉진하며 더불어 작품 완성의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초3~6학년은 가상현실 영상과 함께하는 생생역사교실 및 일제강점기에서 저항하는 우리 민족이라는 교육내용으로 운영하게 된다. 가상유물로 삼국시대 및 고려시대 유적 · 유물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문화의 위대함과 고귀함을 느끼며 학습하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환기자

청정청양 농특산물 세계화, 경쟁력 있다

청양군, 해외시장 개척 다양한 루트 모색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역의 우수한 농 · 특산물의 해외 수출을 위해 수출박람회 및 설명회, 해외 판촉전 참가 등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석화 군수는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지역 한인행사 관계자와의 만남을 가진 데 이어 올 6월에는 한국무역협회 주관 수출설명회 행사를 유치해 지역의 업체가 수출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청양을 방문한 미 서부지역 오렌지카운티 한미축제재단 김난향 부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우수한 청정 청양 농 · 특산물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이날 김난향 부회장은 향후 미국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홍보 판촉행사 등에 청양군 특별행사를 기획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 군수는 이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난향 부회장은 "지난 6월 1일 모덕사에서 개최된 의병의 날 행사장에서 농 · 특산물 홍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던 이석화 군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청양을 재방문해 특별행사를 제안하게 됐다"며, "청양 농산물은 품질의 우수성 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딸기산학연협력단, 딸기 재배농가 소득증대 세미나

'시설환경 개선 통한 충남딸기 재배농가 소득증대' 주제로 개최

충남대 원예학과 최종명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충남딸기산학연협력단'은 22일 낮 12시부터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충남딸기 재배농가 소득증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딸기 재배면적의 약 37%를 점유하며 국내 최대 딸기 생산지역인 충남지역의 딸기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준비되었으나, 충남도 외에 타 지역 재배농가, 연구사 및 지도사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딸기 시설재배에서 수량과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하우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ICT 기술의 원예 현장 활용과 미래, 시설하우스의 온도 환경 관리, 딸기의 생리와 환경관리 그리고 시설하우스 광과 CO2 환경관리의 4주제에 대하여 약 5시간에 걸쳐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딸기산학연협력단 최종명 단장은 "이번 세미나가 딸기 재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충남지역 딸기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탕정면 복지, 전국 벤치마킹 방문 쇄도

아산시 탕정면(면장 서장원)은 지난 21일, 탕정면 복지허브화 선진모델을 견학하기 위해 경북 구미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0명이 탕정면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지난 3월,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2개동이 선정되어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고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보듬이'를 2015. 2월 최초 구성하게 되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탕정면의 복지허브화 선진모델』을 배우고 구미시에 접목하고자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방문은 탕정면 복지팀장의 '면 단위 복지허브화 추진내용' 설명에 이어 '주민이 실천하는 사례관리'에 대해 민 · 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하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 열띤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탕정면은 '주민이 만들어 가는 복지허브화 실현'으로 전국지자체에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보건복지부 역점 추진과제인 복지허브화 선진모델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선진 복지도시 아산~!!'이라는 복지브랜드 네이밍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여성포럼, 일 · 가정 양립 정책 제안 위한 원탁토론

일 · 가정 양립 어려움 해소하고 당진시에 정책 제안 하고자 개최

당진여성포럼(대표 우혜숙)이 지난 22일 일 · 가정 양립 정책 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일 · 가정 양립의 어려운 현실에서 취업여성에게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 ·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진시에 정책 제안을 하고자 당진여성포럼에서 2016년도 1차로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예슬어린이집 정근수 원장이 "당진시 일 · 가정 양립 정책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고, 5개의 원탁에서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토론을 하여 원탁 대표들이 일 ·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해 발표를 한 후에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날 정병희 부시장은 "여성분들은 여성에게만 집중된 육아와 가사부담을 가장 큰 고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성인재들이 경력단절 없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사회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 · 가정 양립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날 원탁토론회에서 포럼회원들이 제안한 사업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검토 등을 거쳐 여성정책사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시, 제4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시 홍보대사 역할 수행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018 올해의 관광도시 공주'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시덕 시장과 관계 공무원, SNS 서포터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 소식을 전할 SNS 서포터즈 30명을 위촉했다.

공주시 SNS 서포터즈는 지난달 신청과 서류심사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대부터 70대까지 학생, 주부, 교수,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등 다양한 연령과 직종으로 선발됐다.

이날 위촉된 서포터즈는 앞으로 1년간 공주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공주만의 자랑거리인 지역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취재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하게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정부세종청사 전력설비 합동진단

한전 대전충남본부, 전력설비와 수전설비 전반 걸쳐 시행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최익수)는 지난 21일 직 · 간접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국가 중요시설의 정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핵심 중요시설 중 하나인 정부세종청사에 대한 한전의 전력설비와 세종청사 수전설비 전반에 걸친 합동진단을 시행했다.

이 날 정부세종청사 합동진단에는 한국전력의 분야별 설비진단 전문가 45명이 참여해 정부세종청사 공급 전력설비를 활선상태에서 진단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가공송전, 지중송전, 변전설비, 배전설비, 통신설비 및 청사 수전설비 등에 대한 대규모 예방점검을 실시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합동진단을 계기로 국가 중요시설 공급용 전력설비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을 정례화해 설비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하이트진로 '투이즈 엑스트라 드라이' 국내 시장 출시

호주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맥주를 한국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하이트진로는 호주 라이온(Lion)사의 '투이즈 엑스트라 드라이<사진>'를 22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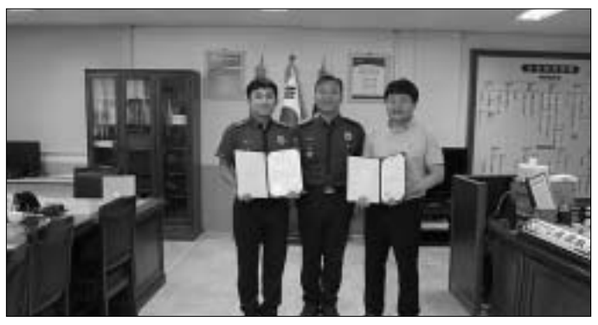
'투이즈 엑스트라 드라이'는 호주 맥주 판매 1위 기업인 라이온의 대표 제품으로 첫 맛은 홉의 쌉싸름한 맛으로 묵직하게 시작되지만 끝 맛은 깔끔하게 떨어지는 알코올 도수 4.4도의 드라이 타입 라거 맥주다. 호주 최초로 갈색 맥주병 대신 투명한 유리병 패키지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시원한 느낌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투이즈 엑스트라 드라이'는 병 타입(345ml)으로 출시되며, 전국 세계맥주 전문점을 비롯해 다이닝바, 펍 등의 유흥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이강우 상무는 "국민 1인당 맥주 소비량이 세계 10위권안에 들 정도로 맥주를 사랑하는 호주에서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투이즈 엑스트라 드라이'는 날씨가 덥고 햇볕이 강한 호주 날씨와 잘 어울리는 드라이 라거 제품으로 한국에서도 올 여름 '투이즈 엑스트라 드라이'와 함께 무더위를 날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한남대, 대전지방경찰청과 관·학 협약 체결 한남대(총장 이덕훈)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22일 한남대 린튼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의 치안과 과학수사 분야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홍성경찰서, 업무 유공 경찰관 표창장 수여식 22일 오전 9시 불법게임장 단속 유공 및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구조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아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실시 22일, 아산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통제단으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현장 대응 수습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청양경찰서, 미래의 경찰 어린이 경찰관 체험 지난 21일 청양읍에 있는 드림키즈어린이집 어린이 13명을 대상으로 경찰관들의 활동사항을 소개하며 미래경찰관의 꿈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주서 정안파출소, 농번기 절도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공주서 정안파출소(소장 이창진)는 지난 22일 관내 마을회관 앞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농번기절도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전충남병무청, 작은문화센터 운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직원 간 재능기부로 취미, 기술을 동료와 나누고 소통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작은 문화센터를 운영한다.

제대군인지원센터 '힐링탐방-귀농귀촌 팸투어' 행사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현)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22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군인 및 가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링탐방-귀농·귀촌 팸 투어'행사 참여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강독성 해파리, 작년 비해 2배 이상 급증

국민안전처·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수욕객들의 주의 당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은 강독성인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출현률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여 해수욕객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정보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주로 출현하는 해파리는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로 7월~8월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현률이 높아진다.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는 강독성으로 7월 중순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출현하여 어업 및 해수욕객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올해 7월 2주째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률은 작년에(7.94%) 비해 2배 이상 높은 20%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13~'15년) 해파리 등 독성 바다동물과의 접촉하여 발생한 환자는 총 2,216명으로 7월부터 급증하여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강독성 해파리에 쏘인 경우 꿀벌에 여러번 쏘인 정도의 통증이 있으며, 가느다란 줄 모양의 상처가 생기거나 심한 경우 부종, 발열, 근육마비,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해파리에 쏘인 경우 즉시 바닷물로 세척하고 온찜질(45℃)로 통증을 완화 시키고, 심한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상처를 문지르거나, 수돗물이나 식초, 알코올로 세척하는 것은 독을 더 퍼지게 할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바다에서 물놀이 중에 해파리 출현 시 물놀이를 자제해야하며, 바다에는 해파리뿐만 아니라 독성 생물이 많아 잘 알지 못하는 생물은 만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며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김태선기자

청양소방서, 119신고 요령 홍보에 나서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고요령을 알지 못해 긴급출동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해 119신고요령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우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119로 신고해 사고위치에 대한 정확한 주소를 알려야 하며, 주소를 모를 경우 주변에 있는 큰 건물, 간판 상호명이나 전화번호, 전신주 번호 및 엘리베이터 번호를 알려주면 정확한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 또 도로위에 세워진 전신주의 고유번호를 이용한 신고방법으로 숫자와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8자리는 위도와 경도, 세부위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신고 시 위치 파악에 용이하다.

특히 화재의 경우 119상황실과 전화 연결 후에 신고자 이름, 화재발생장소, 건물구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119에 신고한 전화로는 다른 곳과 통화하지 않고 대기해야한다.

청양=정상범기자

층간소음 예방교실…교육 효과 힘입어 확대 운영

하반기부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해 운영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하반기부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층간소음 예방교실'을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 3.0의 취지에 맞춰 도서관, 문화센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예방교실'은 만 3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좋은 소리와 불편한 소리 구분하기', '층간소음 역할극' 등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육을 1~2회 제공하고 있다. 이 예방교실은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어릴 때부터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근본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4~6월 수강자 662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실'에 대한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교육전 69.4점이던 층간소음 예방행동에 대한 인지도가 교육후 89.4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8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송파구 아이코리아연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50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각 공동주택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를 연말까지 100개 단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안내하여 자체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민의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공동주택단지 층간소음 맞춤형 서비스'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개별로 연락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1661-2642, 032-590-3575)로 문의할 수 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층간소음은 벽과 천장, 바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으로, 일상생활로부터 나오는 일시적, 불규칙적 소음이 원인"라며 "공동주택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 등은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지만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www.daejeontoday.com

우송정보대학, 일본 오사카산업대학교와 교육협약

학술 정보 교환 등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세부적으로 약속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지난 5월 16일 일본 오사카산업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대학교는 두 대학의 학술 및 교육교류를 위해 학생교류, 교직원 교류, 공동 연구, 학술 정보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세부적으로 약속했다.

특히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조리계열과 오사카산업대학교 경제학부는 협약에 따라 우송정보대학 졸업생이 오사카산업대학교 경제학부에 3학년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1년에 10여명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일본어 능력시험(JLPT) N2 또는 JPT 550 점 이상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총장이나 학부장 추천에 따라 편입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편입생에게는 입학금 면제, 수업료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졸업생은 학사학위도 수여된다.

이번 두 학교의 교육협약 체결로 우송정보대학은 한국대표명장을 키우는 명품대학,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한걸음 더 발돋움하게 되었다.

정상직 우송정보대학총장은 "창의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명품 인재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해외대학과 네트워크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협약도 학생 자신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논산소방서, 재난현장 통신원 위촉

소방출동 사각지역의 골든타임 확보 위해

논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21일 연산119안전센터에서 재난현장통신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논산소방서는 신고 시 지번과 도로명 주소의 혼용 및 향토지명의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원거리 지역 등 소방출동 사각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재난현장통신원을 위촉해 재난 발생 초기 현장상황 등의 정보를 소방대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재난발생 사전 예방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운영방법은 해당 지역별로 3인에서 5인별로 구성하며 마을 이장, 택시기사 등 지리에 익숙한 주민으로 지정·운영하고, 농어촌 원거리 지역 재난 발생 시 상황속보를 통해서 현장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벌곡면은 논산소방서에서 26km, 연산119안전센터에서 12km의 원거리에 위치해 벌곡면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재난현장통신원을 위촉하게 되었다.

논산=김태선기자

서산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서산경찰서(서장 손종국)가 서산시청, 교통연수원,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최근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어르신 중심으로 행락철 교통안전수칙 홍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거리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실시 했다,

이날 캠페인은 서산1호광장에서 시작해서 동부시장 일대를 가두행진으로 이루어졌고, 교통법규 준수 및 보행자 안전홍보 전단지, 야광테클(팔찌) 배부, 방송차량 등을 활용 캠페인의 효과를 높였다.

서산경찰서는 지역 특성상 노인과 어린이 보행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서산=김정한기자

불후의 명곡 소리꾼 남상일, 26일 공주 고마에 온다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운영하는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의 하반기 첫 강사로 KBS 인기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서 우리의 가락으로 실력을 뽐낸 소리꾼 남상일이 나선다.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흥미진진 공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품격 높은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의 20번째 교양강좌가 26일 오후 3시 공주 고마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날 강연에서는 탄탄한 소리 실력과 타고난 예능감으로 각 방송사의 시사,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있으며 판소리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남상일 강사가 강연장 전체를 우리 소리의 흥으로 가득 메울 예정이다.

7월부터는 고마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은 공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월 13일까지 매월 2회,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영인파출소, 어린이 물놀이 안전교육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 영인파출소에서는 지난 21일, 영인면 소재 세재골농원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 방문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교육을 진행했다.

한창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멀리 떨어져서 물놀이를 하지 않을 것을 설명해 주고,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두려움 해소와 친근감을 주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사진촬영 기회 또한 제공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직장인, 월 평균 53시간 초과근무"

<사람인> 직장인 일주일에 평균 3.6번의 야근… 하루 3.7시간 초과근무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3.6번의 야근을 하며, 하루 3.7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1,698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야근 실태'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 81.2%가 평소 야근을 하고 있었으며, 일주일 평균 3.6번 야근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5번'(28.3%), '3번'(19.4%), '4번'(16.2%), '2번'(15%), '1번'(12.5%) 등의 응답 순이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과장급'(86.5%), '대리급'(86.2%), '사원급'(78.3%), '부장급'(76.8%), '임원급'(50%) 순으로 야근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평균 3.7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13시간, 한 달에 평균 53시간을 초과근무하는 셈이다.

야근을 하는 이유로는 '업무량이 많아서'(54.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어서'(38.8%), '야근을 강요하는 분위기여서'(34.5%),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22.2%), '상사가 퇴근해야 퇴근할 수 있어서'(21.3%), '퇴근 시간 임박한 업무 요청이 많아서'(21.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야근이 잦은 요일로는 '화요일'(78.6%, 복수응답), '목요일'(75.4%), '월요일'(70.5%), '수요일'(70.1%), '금요일'(52.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야근에 대한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56.7%(복수응답)가 '보상이 없다'라고 답했으며, '야근 식대'를 지원받는 비율이 27.1%, '야근 수당'은 198%, '야근 교통비'는 7.6%가 받고 있었다.

야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96.7%, 복수응답)는 응답이 '긍정적 영향이 있다'(30.8%)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가장 많은 65.2%(복수응답)가 '이직, 퇴사를 고려한다'라고 답했으며, '가족, 친구에게 소홀해진다'(60.2%)가 바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건강이 나빠진다'(59.3%), '우울/무기력해진다'(52.7%),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51.1%) 등의 답변 순이었다.

잦은 야근은 질병은 물론 이직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1.6%는 잦은 야근으로 질병에 시달린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이 겪은 질병으로는 '만성 피로'가 929%(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두통'(62.5%), '어깨통증'(56.8%), '소화불량'(56.6%), '수면장애'(48%), '피부 트러블'(41%), '손목터널증후군'(29%), '탈모'(21.2%), '디스크'(21%) 등의 질병을 호소했다. 또, 32.8%는 잦은 야근으로 인해 직장을 옮긴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근 후 퇴근길에 보람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빈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52.7%), '거의 느끼지 않는다'(41.3%), '자주 느낀다'(5.2%), '항상 느낀다'(0.9%) 순으로 응답해, 대다수의 직장인이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복기자

세종시교육청, 세계인권 수호 다짐대회

지역사회로의 세계시민의식 확산 위해 개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작은 인권 실천운동이 세종시에서 일어났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1세기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타계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육성하고 실천 활동을 통한 학교 및 지역사회로의 세계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2016 세계인권 수호 다짐대회를 지난 21일 한솔중학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에 속한 참샘초, 조치원명동초 등 초중고 12개교와 예비학교인 아름초를 포함한 13개교에서 250여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초·중·고 14개교 연합 학생들의 세계 인권 수호 다짐을 시작으로, 참여 학교들의 유네스코 활동과 세계시민교육 사례발표, '우리는 하나' 소그룹 활동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학생들은 30조에 달하는 세계인권선언문을 바탕으로 학생 신분에서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10개 항목을 추출하고 논의와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한 세계인권수호다짐문을 발표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용화고, 청소년연극제 단체 대상 수상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군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 청소년연극제 충남예선에서 온양용화고(교장 이성학) 연극뮤지컬단 <상상놀이>가 '대단한 단추들'(원작:이정록, 각색:이용준 3학년, 작곡:오충수, 지도교사:전장곤)로 단체 대상(충남도지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대전교육연수원, 학교급식실무과정(2기) 연수

초·중·고 조리종사원 직무연수 실시

대전교육연수원(원장 김원중)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14시간) 초·중·고에 근무하는 조리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실무과정(2기)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일선 학교 급식업무 담당자로서 조리원의 역할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학교급식의 안전과 질 향상에 연수의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은「노무관리의 이해」,「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급식종사자의 임무와 역할」「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구분 및 검수방법」등 실무능력 향상과 직무와 관련한 교과목을 편성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양과목으로「웃음과 유머를 연습하라」,「문화체험 조조영화」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힐링으로 생활의 활력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였다.

김원중 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급식종사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대전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성과 정성을 담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아토피 치유학교 토양조사 '불소검출'

금산군 상곡초 운동장, 놀이터 우려기준치 초과

금산군 군북면 상곡초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불소함유량이 지난달24일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우려기준치가 나왔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채취한 토양시료 분석결과, 놀이터와 운동장 중앙에서 각각 784.6mg/kg와 684.8mg/kg이 나왔다 이는 우려기준치인 400mg/kg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금산군은 해당학교에 운동장 사용자제를 요청해 금산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놀이터와 운동장을 긴급폐쇄조치 했다.

금산교육지원청이 토양오염 재검사와 오염 경위 파악 등 정밀조사를 위해 지난20일 충남도교육청에 토양정밀조사를 위한 긴급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신청했다.

이에 25일부터 조사기관인 한남대가 토양정밀조사에 나서게 되며, 결과는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달여 동안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운동장 재조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토양에 영동의 A골재장에서 마사토(160Rb)를 10cm 정도 깔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운동장 표면에 마사토를 깔았다"고 답변을 하지만 운동장 표면에 깔려진 검은색과 흰색의 미세 골재들의 이름은 모르고 있다. 금산=손광우기자

중국 옥환현 성관중심소학교와 문화교류

당진 탑동초,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한 교류

당진 탑동초등학교(교장 한동현)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중국 옥환현 성관중심소학교와 문화교류학습을 실시한다.

양 도시(당진시-옥환현) 학생들간의 자율적인 상호교류 활성화하고 중국 학생들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기 위한 문화교류는 먼저 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옥환현 성관중심소학교 학생 12명과 인솔자 4명이 당진 탑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을 둘러본 후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견학, 현대제철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

이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는 당진 탑동초등학교 학생 12명과 인솔자 4명이 중국 옥환현 성관중심소학교를 방문해 바둑 체험, SUPOR 기업체 견학, 옥환 투어, 요리 교실 등을 통해 중국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함께해요! 행복한 학교" 교육 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올바른 자녀양육 위해 가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은 7월 21일 관내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교감 등 260여명을 대상으로 충남남부평생학습관에서, 2016 올바른자녀양육을 위한 「함께해요! 행복한 학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학부모 인식개선 제고 및 아동 학대 예방에 목적을 두고,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영희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자녀에게 힘을 주는 부모'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동안 보호받고 양육되어지는 가정의 소중함과 아울러 자녀의 자아 정체성 형성 바탕이 되는 부모의 성격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힘을 주는 부모는 받아들임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속에 애정의 이미지로 남아 있는 부모이고,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에게 좋은 교사가 되며, '다른 아이에게 지지마라'가 아니라, '자신에게 지지마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라고 하였다. 이어서 학교운영위원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전달연수도 함께 실시하였다. 논산=김태선기자

다문화 고등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충남도교육청, 3박 4일 동안 도내 다문화 고등학생 위해 운영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도내 다문화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직업현장 체험, 진로설계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충남도교육청이 혜전대에 위탁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고등학생들에게 개인별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MBTI) 검사, 진로설계와 인성계발을 위한 특강은 물론 바리스타, 한식, 중식, 서양식, 제빵, 캐드(CAD) 등 6개 영역의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학생들의 고충 상담도 진행된다.

충남도교육청 전석진 학교교육과장은 "다문화학생의 꿈과 끼를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감과 자립심을 길러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청양 합천초, 음악 골든벨을 울려라!

합천초등학교(교장 김종석)는 지난 21일 음악체험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과 재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듬내관에서 '1학기 음악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매일 복도 및 화장실에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주 2회 '클래식과 동행하는 행복한 아침'이라는 아침 음악방송을 통해 클래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쌓은 것이 대회를 개최하는 계기가 됐다.

대회는 개인전으로 이루어지며 음악을 듣고 곡명, 작곡가, 해설내용을 단답형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으뜸상 3명, 버금상 3명을 시상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서산 부춘중, 이윤주 학생 머리카락 기부

소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

서산 부춘중(교장 서퇴석) 3학년 이윤주 학생은 3년 동안 기른 머리카락을 소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해 화재다.

이윤주 학생은 평소 가족들이 구호단체 등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아 오던 차에 백혈병 소아암을 앓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발 기부를 알게 되면서 경제적인 후원 말고도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모발 기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소아암은 아직도 아동질병사망 원인 1위로, 매년 한국에서는 1,600여 명의 소아암 환아가 발생한고 협회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기부문화가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사랑과 나눔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여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공주교육지원청, 201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위한 진단·평가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15일간 공주정명학교와 공주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특수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0104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진단·평가는 대상 학생의 연령에 맞도록 유·초·중 특수교사를 진단·평가 위원으로 위촉했고, 진단·평가 실시 전 사전 연수를 통해 각종 검사 도구에 대한 워크숍 및 대상 학생의 특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합한 검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했다.

●동 정●●●

국제행사심사위원회

허승욱 충남도정무부지사 = 25일 오후 2시에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참석.

간부회의

김석환 홍성군수= 25일 오전 8시 40분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 참석.

초등영어교사 연수 격려 방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22일부터 31일까지 호주 주정부와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학예교류 업무협약 및 뉴질랜드 정부와 초등영어교사 융합형직무 연수를 격려 방문.

유·초·중등 교(원)감 자격연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5일 오전 10시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석원경상관에서 열리는 2016 유·초·중등 교(원)감 자격연수에 참석.

광역직거래센터 1호점 대전서 문 연다

道-논산시-대전MBC 협약… 연내 준공목표 건립 착수

충남도내 생산·가공된 농식품을 도시지역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광역직거래센터가 대전시에 들어선다.

충남도는 23일 대전MBC 1층 공개홀에서 논산시, 대전MBC와 함께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역직거래센터는 총 사업비 18억 3000만 원 규모로, 도와 논산시가 각각 5억 4000만 원, 대전MBC가 5억 원, 서천군수협이 2억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한다.

광역직거래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대전시 유성구 엑스로포 161 야외주차장 일원으로, 대전MBC가 10년간 무상 제공한다.

광역직거래센터는 연면적 약 1320㎡의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1층 직매장, 2층 농가 레스토랑, 3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에 착수해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광역직거래센터 1호점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논산의 농산물과 서천군 지역의 수산물 등 충남지역의 다양한 농수축산물들을 집적화해 대전지역 소비자들에게 직거래 형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우리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대전MBC의 홍보 및 마케팅을 활용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직거래 장소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3농혁신 유통 분야의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6월 기준 로컬푸드 직매장 28곳과 직거래장터 24곳을 운영 중이다.

김정한 기자

예산군, 개인균등분 주민세 3000원서 1만원으로 인상

차등 지원·물가 인상 등 감안

예산군은 17년 동안 동결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부과에서 제외된다.

군은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도 이후 17년 동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정부가 주민세 인상권고와 함께 인상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또한 물가상승 및 징수비용과 복지수요의 증가 등 경제적, 현실적 여건 변화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주민세를 인상하는 '군세조례'를 개정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현재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인상은 당장 군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증가되는 재원은 복지증진과 재난안전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며 "오는 8월 말까지 납기 내 납부해 주시고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이상화기자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 현황 전수조사

홍성군, 체계적 관리·투자계획 수립…자연재해 등발생 피해 최소화

홍성군은 경지정리 지구내 농경지 용·배수로정비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시작된 '용·배수로정비 중장기계획'이 계획기간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 조치계획 수립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군은 농촌경관의 개선 필요성과 농촌 인구고령화 등 주민숙원사업의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되면서, 용·배수로의 체계적 관리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현지 조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군은 18일 '용·배수로 정비현황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교육'을 읍·면 산업팀장 및 담당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번 정비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 이장 및 수리계 등에게 당부했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정비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비를 시행하고, 우기철 사전 수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체계적인 용·배수로 정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하고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영농 편의와 불량 용·배수로의 정비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홍성=최진우기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안전보건교육

안전하고 행복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성군이 뛰고있다.

홍성군은 21일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담당자 약 132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김연기 소장을 초빙하여 산업안전보건이란 주제로 실시하였으며, 근로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사례별 예방대책을 자세히 소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강의로 청중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무사안일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산업 재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켰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개인의 건강관리와 사고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업기간 내에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최진우기자

자전거 보험 군민 수호천사 역할 '톡톡'

예산군,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관련사고 보장

예산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이 군민의 수호천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와 자전거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정신적·경제적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보험제도이다.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는 이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안전 보험'의 경우▲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발생 시 보험금 청구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339-7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군민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된 주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이상화기자

내포중 여름 독서 캠프 개최

내포중학교는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여름독서캠프를 실시하였다. 여름독서캠프는 인문학 소양을 기르고 책 읽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캠프는 전학년 중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개설하여 4명의 지도교사가 본교 도서관 및 군산 일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여름 독서 캠프의 첫날에는 작품 필사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현수 시인을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마음을 울린 명문장을 그림 엽서에 옮겨 적는 활동을 통해 책읽기 활동 후의 감상을 주고 받았으며, 신현수 시인의 '시로 읽는 한국근대사' 강연을 들으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더불어 신현수 시인은 '건강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21일에는 군산으로 문학기행을 떠났다. 채만식 문학관에 들렀고, 이후 근대역사박물관에서는 해설사 선생님을 통해 군산이 우리 근대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및 역사의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도 하였다. 근대 생활관에서 다양한 미션지를 수행하며 지금과는 다른 옛날 모습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눈과 귀로 체득하였다. 이후 진포 해양테마공원을 끝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홍성=최진우기자

전문무역상사 매칭데이 개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유망 중소제조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해 22일 전북센터에서 농수산식품 분야 「전문무역상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충남 소재 농수산식품 중소제조업체 32개사들이 참가하여 수출 노하우가 풍부하고 자체 해외영업망을 보유한 8개 전문무역상사와의 개별 수출상담회를 가진다.

또한 무역협회 전문위원들이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과 수출실무 분야에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충남혁신센터 6차산업 명품화 전문컨설턴트들이 시제품 제작 및 제품 포장 디자인 개선 관련 코칭 상담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역량이 미흡한 내수·수출초보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216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무역존은 업종별 전문무역상사를 초청하여 매칭데이를 개최해오고 있다.

무역존이 그동안 개최한 식품·화장품·건자재 분야 전문무역상사 매칭데이에서 중소제조업체 62개사 전문무역상사 20개사가 169건의 수출 상담을 가진 이후 최근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병우 센터장은 "충남센터는 전국센터 중 유일하게 무역존을 운영하며 중소제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며 "전국 혁신센터의 수출지원 허브로서 창업·보육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혹서기 폭염 대비 건설현장 현장점검

행복도시, 건설 산업재해 발생 예방·근로환경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혹서기 폭염에 대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전체 건설현장(139개)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7월 13일~7월 19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인한 건설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응급의료시설, 휴게시설(그늘막 등), 샤워실, 제빙기, 식염수 등의 비치상태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사업장 폭염단계별 행동요령 숙지, 모의훈련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폭염대비 편의시설 및 장비 비치가 미비한 일부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토록 권고 조치하였다.

이와함께, 행복청은 폭염관련 기상특보 발령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관리자에게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현장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행복청은 이번 점검 결과, 근로환경 관리상태가 우수하고, 근로자 안전교육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는 현장을 선정하여 향후 정기점검 1회 면제혜택과 함께 연말 포상 예정인 '행복도시 올해의 현장소장·감리단장' 선정 대상 자격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적과 시정이 반복되는 타의적인 건설문화를 탈피하여 현장 스스로 관리하고, 우수한 현장을 벤치마킹하는 선순환 구조의 건설문화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기존과 차별화된 점검을 통해 현장 스스로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근로환경 개선해 나가는 건설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행복도시를 건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세종사랑 숲 지킴이 캠페인

산불방지·산림훼손 방지·산지정화 캠페인 등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1일 고운동 고운뜰린공원에서 숲 지킴이와 함께 숲사랑 캠페인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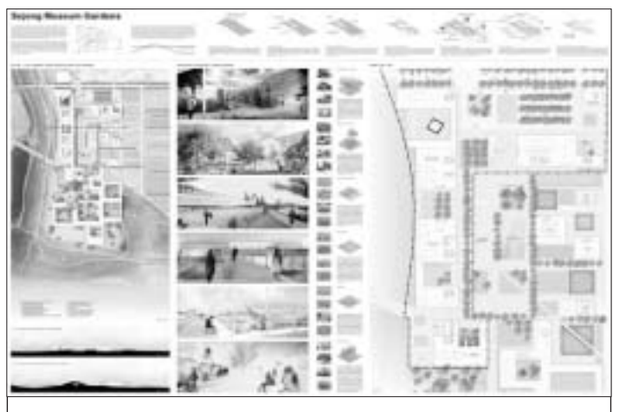
이번 캠페인은 숲 지킴이 30여명과 산림축산과 공무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사랑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고운뜰 근린공원 주변의 도시 숲 정화 활동을 벌였다.

홍진만 숲지킴이 모임 회장은 "정기적으로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지정화 캠페인 등 숲사랑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숲 지킴이를 증원하는 등 숲 사랑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시 숲 지킴이는 현재 51명이 활동하고 있다.

세종=김정환 기자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국제공모 1차 심사결과 발표

국가·도시 경쟁력 향상 문화시설 확충 전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의 종합계획(마스터플랜)에 대한 국제공모 1차 심사결과를 24일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3일 작품접수 마감결과, 전 세계 24개국에서 80개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하여, Museum Malling(D-884), Laputa(D-228), Sejong Museum Gardens(O-767), Mound-Scape(Y-262), The Urban Garden(C-610)의 5개 당선작과 6개의 가작을 선정하였다.

20일과 21일 양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진행된 이번 국제공모 심사는 기술위원회 보고서 검토, 심사방법 결정, 작품분석,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고, 최고의 작품을 가려내기 위해 일부작품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심혈을 기울인 심사 끝에 1차 5개 당선작이 선정되었다.

이번 심사에는 이성관 한울건축 대표(심사위원장)를 비롯하여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준성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후루야 노부야키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크리스토퍼 샤플즈 미국 SHoP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예비 심사위원)가 참여하였다.

심사위원장인 이성관 한울건축 대표는 "이번 심사에서는 개별 박물관의 독립성과 전체 박물관 단지의 통합성과 조화,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어반 아트리움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 단계별 개발을 고려한 확장 가능성 등을 주안점으로 보았으며,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작품도 많았으며, 박물관단지라는 제한적인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선하고 독창적인 제안들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세계적 도시 어딜가나 국가 및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국제공모를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가 우리나라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라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선도하고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선작 5개팀에게는 2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부여와 함께 2차공모 참가보상비로 각각 5,000만원이 지급되며, 6개 가작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2차 공모는 종합계획의 상세계획과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건축계획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달 8월 초에 공고되어 오는 11월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립박물관 단지는 행복도시 중앙공원과 금강이 접한 19만㎡의 부지에 다양한 박물관을 집약해 건립하며, 1단계 사업으로 7만5천㎡의 규모에 총 사업비 4,552억원을 투입하여 5개 박물관과 2개 통합시설을 202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세종=이정복기자

NAVER 들어보세요! 네이버스토리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검색

동정

간부회의

정병희 당진부시장 = 25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월요소간부회의를 주재.

당진상공회의소 방문

이종윤 당진시의장= 25일 오전 9시 30분 당진낙협과 당진상공회의소를 방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한상기 태안군수 = 25일 오전 9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에 참석.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심재진 당진교육장= 25일 오전 10시 당진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 상반기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에 참석.

인주면 깨 · 친 · 아 릴레이 실시

아산시 인주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김금섭)는 지난 20일 깨 · 친 · 아(깨끗하고 친절한 아산만들기) 릴레이 일환으로 차량통행이 많은 인주농협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주면 직원, 인주 파출소 직원 및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약 30여명이 참여해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근절!'을 주제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적극 홍보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강준배 부군수 물놀이 안전현장 점검

강준배 청양 부군수는 지난 21일 관내 까치내유원지를 비롯해 물놀이 관리지역 8곳을 돌며 구명환 · 구명로프 · 구명조끼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물놀이안전관리요원(충남도립대 소방안전관리과 5, 지역주민 3)과 119시민수상구조대를 격려하고,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 부군수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대치면 물레방앗간 유원지 일원과 2015년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된 까치내유원지의 생활쓰레기 처리와 함께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 피서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기도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빈틈없는 행정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정병희 당진부시장, 행정공백 제로화 · 공직기강 확립 지시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난 20일부터 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정병희 부시장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정공백 제로화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정 부시장은"무더위에도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대집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도 돌입한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보여줘야 하는 자세는 빈틈없는 행정력과 시민불편 최소화"라며"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을 중심으로 만전을 기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당진시는 공직기강확립 대책을 수립하고 감찰반을 편성해 본청과 각 읍면동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암행 감찰활동에 돌입했다.

당진시는 휴가집중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와 주민불편 초래 사례를 비롯해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와 허위 출장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성 관련 위법행위, 금품수수 등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정병희 부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행정공백을 제로화하고 마음으로라도 무더위와 싸우며 단식활동에 나선 시민들에게 힘을 보탤 것"이라며"휴가기간 동안에도 가급적 국내여행을 장려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지내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구축 교통불편 해소

지방도603호선 국지도 승격 성과 · 국도 확장 등 추진도 만전

태안읍 장산리와 근흥면 신진도리를 잇는 지방도603호선 16.7㎞ 구간의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이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 태안군이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지방도603호선 16.7㎞ 구간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군수물자 운송차량이 이용하는 왕복 2차선 구간으로, 연포해수욕장과 신진도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도로 이용이 잦아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방도603호선의 국지도 승격 및 왕복 4차선 확장을 민선6기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한상기 군수가 직접 정부 부처를 방문해 국지도 승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국지도 승격 협의에 이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승격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군은 이번 국지도 승격을 계기로 태안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민선6기가 추진 중인 '사통팔달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태안지역에는 만리포와 꽃지 등 30개의 해수욕장이 8개 읍 · 면 전역에 위치해있으나, 도로가 협소해 피서철 및 주말마다 교통체증이 잦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태안군은 국도 및 지방도 확 · 포장을 민선6기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현재 국도 32호선(소원선)과 77호선(남면선) 확장, 북부순환도로 개설, 태안로터리 도로 확장 및 태안-보령 연륙교 건설 등 교통 불편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도 확 · 포장은 내년, 태안-보령 연륙교 건설은 내후년이면 준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이번 국지도 승격과 관련 태안-원북 간 지방도 역시 충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1억 2천만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추경에 확보됐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비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확장공사 중에 있는 남면선과 소원선이 내년 완공되면 관내 읍 · 면간 간선도로 확장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보여,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은 물론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기 군수는 정부 및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예산 확보 등 실질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도 확 · 포장과 연륙교 건설 등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장평면 여름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은 여름 휴가철 피서지의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장평면은 까치내 유원지, 도림계곡 등 피서지별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하며, 쓰레기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 운영 등 비상 청소체계를 구축 ·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피서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발생억제와 수거요령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쓰레기 단속반을 편성 · 운영해 무단투기와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면 관계자는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 및 적기수거 · 처리 체계 구축 등으로 피서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여름 휴가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피서지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아산시 조기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아산시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 · 광역시, 도, 시, 군 등 부문별로 나누어 집행실적, 민간실집행실적, 예산규모의 항목별 점수로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아산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市部 대상 의정부시)

아산시의 조기집행 목표액은 대상액 6,361억 원 중 56.5%에 해당하는 3,594억 원으로 6월말 기준으로 총 4,311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19.96%를 달성하여 목표액 대비 717억 원(20%p)을 초과 집행했다.

이는 앞서 1/4분기에도 재정집행 행자부 전국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데에 이어 최종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충남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계획적인 재정집행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실 · 과 · 사업소 및 읍 · 면 · 동모두가 합심하여 적극 동참해 이루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산시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특히, 연말 관행적으로 집중 집행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예산의 과다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적인 재정 균형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나서

당진시, 방재단원 위촉장 수여 · 역량강화 교육 실시

당진시가 자율방재단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자율방재단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김민기 자율방재단장을 포함한 읍면동 자율방재단장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으며, 김성용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김성용 총재가 강사로 나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을 주재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강의에서 재난의 종류를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재난의 위험성을 경고한 뒤 자율방재단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자율방재단으로서의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갖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시민 주도의 안전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방재단은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자율방재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구성 운영되고 있다.

당진시는 앞으로 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직무능력강화교육을 비롯해 자체 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재난 업무 추진 시 지역사정에 밝은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분야별 재난대응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진 =최근수 기자

정산면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홍보총력

청양군 정산면(면장 김성근)은 오는 29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거나, 과수 · 원예 · 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 · 사육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 지급된다.

2016년 피해보전직불제 지급대상은 시설 및 노지 포도, 블루베리, 당근이며, 폐업지원사업 대상은 시설 및 노지 포도와 블루베리이다.

신청 자격은 ▲시설포도 2014년 12월 12일 이전 ▲노지포도 2013년 5월 1일 이전 ▲블루베리와 당근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청양=정상범 기자

우/리/동/네

태안군 더위야 가라 해양레저 호응

한서대 해양교육원, 체험교실 · 수상스포츠 쇼 열려

태안군 남면 곰섬 일대에서 한여름의 무더위를 씻어줄 수상스포츠 공연 및 체험교실이 열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서대학교 해양교육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곰섬 일대에서 바나나보트, 파워보트, 크루즈요트, 카약, 페달보트, 해양레저 가상체험 등 즐거운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묘기, 파워보트 경주, 플라이 보드 등 화려한 수상스포츠 쇼를 준비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태안군의 해양 환경과 한서대학교가 보유한 우수한 인적 · 물적 인프라가 만나 열리는 이번 수상스포츠 공연은 지역 내 해수욕장과 천리포수목원, 신두사구 등 뛰어난 관광자원과 연계,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한서대 간 상생협력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공연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양레저 관광 휴양도시라는 군의 이미지와 한서대 해양 특성화 이미지의 동반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동안 하루 10회 진행되고 회당 100명이 입장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수상스포츠 쇼는 매주 토요일 하루 2회(오후 1시, 오후 6시) 각 50분씩 진행되며, 역시 입장료는 무료로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한서대 해양스포츠교육원은 60만㎡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항공, 해양, 육상 등 실제 체험 위주의 재난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군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체험교실 및 수상스포츠 쇼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서대학교 해양교육(http://hanseomarine.org, 041-674-8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한기자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전개

청양군, 인성 · 식품 매개감염병 · 식중독 발생 홍보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수인성 · 식품 매개감염병과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은 이날 본격적인 휴가철, 피서지 등 야외에서 소홀하기 쉬운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켜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관리의 기본인 올바른 손 씻기 방법 6단계에 대해 홍보했다.

군 보건의료원관계자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두세 시간만 지나도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먹고, 끓인 물 또는 안전한 물을 마시며, 어패류 조리 시 60℃ 이상 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양군은 일본 뇌염,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등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하절기 비상방역을 시행하고 집단 설사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취약지역 사전 점검 활동 등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청양=정상범 기자

우/리/동/네

선진 농업으로 변화 시도

부여군, 딸기농업인 네덜란드 PETC+ 전문교육 참여

선진농업국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부여의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부여군농기센터(소장 이병석)에서는 지난 17일~25일까지 네덜란드 농업실습교육기관 PETC+(Practical Experience Training Center Plus)에서 농업인 등 22명이 참여하여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PETC+ 교육은 2013년도부터 토마토, 비육우, 양송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1품목씩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딸기 농업인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PETC+ 딸기 전문교육 과정은 오전에 딸기재배에 대한 이론교육으로 측정 · 교정 장비에 대한 이해와 딸기 생리특성, 육묘기술, 토양관리, 병해충 관리에 대한 학습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재배현장을 직접 견학하는 실습교육으로 실시됐다.

5일 과정의 교육을 마친 후 네덜란드 농업과 유통시장 견학, 암스테르담, 헤이그 지역의 문화탐방도 병행됐다.

10월 중에는 딸기분야 국외 농업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여지역 딸기재배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컨설팅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선진농업의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어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석 소장은 "선진국 농업국인 네덜란드의 딸기 재배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이수와 전문가초청 교육으로 부여군의 딸기 재배기술을 크게 향상시켜 경쟁력 높은 스마트 선진농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현안 풀고 미래비전 만드는 해법 '협업 · 협치'

논산시, 국회의원 도 · 시의원 초청 시정 설명 · 현안 토론 등 진행

결국 논산 현안을 풀고 미래 비전을 만드는 최고의 해법은 '협업과 협치' 였다.

논산시가 국회의원, 지역 의원들과 지역 현안해결을 통한 논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22일 상황실에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국회의원, 충청남도의원, 논산시의회 의원을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황명선 논산시장, 김종민 국회의원, 송덕빈 · 전낙운 충남도의원, 김형도 논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시정현안과 정부예산 확보 상황을 설명하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좌진들에게도 논산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모를 통해 의원들의 논산발전을 위한 활동을 뒷받침해 그 효과를 높였으며, 의원들과 논산발전의 지원과 협조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내년 시정 현안 신규 및 증액 사업들이 도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 국비를 확보해야 할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11개 사업을 꺼내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KTX훈련소역 신설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강경근대역사문화촌)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강경산 문화공간 조성 ▲탑정호 탐방로 조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 ▲탑정호 아쿠아 아일랜드 조성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국가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추진 논리를 집중 설명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KTX훈련소역신설에 대해서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산을 찾는 연간 130만명의 입소병과 가족들을 위해 국방복지와 예우차원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또 ▲지역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갈등 · 분쟁 예방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계획 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자전거 도로 등 '함께 힘을 모아주실 과제' 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논산의 주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논산지역 특성에 맞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어야만 논산시민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며,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요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세심한 계획을 세워 정부를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람중심행정' 이라는 시정철학으로 논산을 이끄는 황명선 시장과 함께 충남의 미래와 논산의 미래가 둘이 아닌 만큼 지역-중앙 활동을 잘 조화시켜 지역의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논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일관되게 여 · 야 구분없이 모두 단결해야 한다는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 이라며, "논산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단결해서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똘똘 뭉쳐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의 발전이 충남의 발전이며 충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해결에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동 정

여성농업인 회의

황명선 논산시장=25일 오전 10시 30분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논산시 여성농업인 회의에 참석.

군문화축제서포터즈 발대식

최홍묵 계룡시장 = 25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군문화축제서포터즈 발대식" 참석.

간부회의

노박래 서천군수=23일 오후 6시 춘장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2016춘장대해수욕장 여름문화예술축제 개막식과 오후 9시 여름문화예술축제 전국 청소년가요제 시상식에 참석하고, 24일 오후 9시에 여름문화예술축제 전국직장인밴드 경연대회 시상식에 참석하고, 25일 오전 8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

2030 정책토론회

이용우 부여군수=25일 오후2시 부여군 구룡초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부여미래비전 2030 정책토론회에 참석.

모두랑봉사단 손끝으로 사랑 전해

부여사랑노인요양원을 찾아 사랑의 이 · 미용 봉사활동 펼쳐

부여군(군수 이용우) 모두랑 전문자원봉사단은 지난 21일 부여사랑노인요양원을 찾아 사랑의 가위손 이 · 미용 전문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모두랑 전문봉사단은 이 · 미용 전문(양성)교육을 수료하였거나 평소 이 · 미용 기능을 익혀온 전문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오랜 요양시설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장기입소 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말벗과 더불어 손끝으로 전하는 따뜻한 이 · 미용 전문봉사를 실천하며 수혜자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삶의 일부분을 나누는 자원봉사활동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 원동력" 이라며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자원봉사단 확대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여 =이정복기자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

서천군,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봄의 마을 종합교육센터에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학습 능력 향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입시정보 제공을 통한 학생의 목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습법 멘토링과 학습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배양하는 한편, 사전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개인별 학습전략 및 입시전략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자녀 교육 및 입시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 부모님들을 위해 캠프 운영 첫날인 26일 저녁 7시에 서천군종합교육센터에서 학부모 입시설명회가 열릴 예정으로, 관심 있는 학부모는 사전 신청 없이 입시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다.

노원래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 =김태선기자

노박래 서천군수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일자리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민선6기 전국기초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청렴 ▲일자리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7개 분야로 구분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12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

서천군은 "함께 나눠요! 행복한 일자리!"라는 주제로 역동적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순환형 일자리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전국 최초 일자리 방송 라디오서천1919 운영과 노인일자리 1,525개 창출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례를 집중 부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박래 군수는 "지역 선순환 일자리 만들기를 민선6기 최우선 공약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과 모든 기관이 함께 협력해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청년과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 가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제4기 청소년자율방범대 소양교육

계룡시,여름방학 기간 중 학생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계룡시자율방범대는 지난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청소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계룡시 청소년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생활을 형성하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탈선 등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자율방범대는 지난 2014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0여 명의 학생 지킴이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계룡시 전역에서 우범지역 순찰 및 유해시설 안전지도 등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며 올바른 청소년 봉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제4기 청소년자율방범대는 여름방학을 맞아 탈선의 주요 대상인 근린공원과 학교 주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면서 노래방과 PC방 등에 대해 귀가시간 준수에 대한 계도활동을 계룡시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펼칠 계획이다.

계룡시 제12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시상식 열려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사)한국문인협회 계룡지부(지부장 정유지)가 주관한 제12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사계 김장생 문학상은 계룡시의 문화위상을 정립하고 계룡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조선시대 예(禮)학의 대가인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문화적 정신을 계승하고자 시작된 행사다.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공모를 통해 24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문학상에는 대상 1명과 본상 3명(운문2, 산문1)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결과 문학상 영예의 대상에는 박승우씨의 동시집 "생각하는 감자", 본상 운문 부문에는 신진련씨의 "흉터"와 김광수씨의 "등대", 본상 산문 부문에는 금나예씨의 "나를 찾는 여정"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작품을 보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룡시를 대표하는 문화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은 동인지 제23호 "계룡문학"에 수록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문화관광팀(042-840-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 쌍용도서관 '출향 · 지역작가와의 만남' 운영

천안시정보교육원 쌍용도서관(관장 최병돈)은 '출향 및 지역작가와의 만남' 을 운영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쌍용도서관은 5월 3일부터 '출향 · 지역작가 2인 특별기획 전시회' 를 운영하였으며, 연계 프로그램인 작가에게 쓰는 편지 우체통 코너, 참여자 10팀을 선정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했다.

전시회는 출향 작가인 홍종의 아동문학작가(윤석중 · 방정환문학상 수상)와 지역에 거주하는 유미희 작가(오늘의 동시문학상 수상)의 작품 및 원화 전시로 이루어졌다.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작가와의 대화 및 아이들의 기발한 질의 응답과 친필도서 증정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홍종의 작가의 북 연주와 아이들의 북 체험도 즉석에서 흥겹게 이루어졌다.

천안=김정환기자

주민 불편해소 위해 논산시-軍 뭉쳤다

성덕교 임시교량설치…'장간조립교' 투입

최근 집중폭우로 탑정저수지 주 출입로인 성덕교(은진면 성덕리)의 중앙교각이 침하현상에 따른 출입이 전면 통제됨에 따라 피해복구 및 시설개선에 논산시와 軍이 뭉쳤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내린 480mm이상의 집중호우로 왕암천과 논산천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성덕교(시도12호)가 세굴되고 침하돼 교량상판 처짐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사고방지를 위해 붕괴위험이 있는 성덕교에 모든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충남 지역 향토사단인 육군32사단에 군 임시교량 설치를 요청, 지난 21일 군 장비인 '장간조립교' 가 투입됐다.

이에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은 현장을 방문해, 임시가교 설치 상황을 보고 받고 작전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육군 제32보병사단에 따르면, 25일까지 임시가교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황명선 논산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와 軍이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만큼 무더위와 싸워가며 작전에 임하고 있는 제32사단 과 1115 공병단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를 방문해 성덕교 재가설 사업 30억원, 배수펌프 교체 15억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붕괴 위험의 심각성과 사업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동 정

주간업무보고 주재

오시덕 공주시장= 25일 오전 8시 40분 중회의실에서 주간업무보고를 주재.

월간 현안 보고

김동일 보령시장 = 25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월간현안보고, 오전 11시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9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오후 2시 30분 고대도에서 열리는 칼 귀즐라프의 날 행사 참석.

자율방제단 역량강화교육

이완섭 서산시장= 25일 오전 11시에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간월도 관광지 분양활성화 전략수립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자율방제단 역량강화교육에 참석, 오후 3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개최되는 서산발전협의회 참석.

권종군수 제향식

박동철 금산군수= 25일 오전 11시 제원면 저곡리에서 열리는 권종군수 제향식에 참석.

태양광산업, 서산솔라벤처단지 준공식 가져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 핵심거점 활용

서산시가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 특화기술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22일 서산시 성연면에 조성된 서산테크노밸리에서는 서산솔라벤처단지 준공식이 개최돼 태양광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김광수 부단장, 성일종 국회의원,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등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태양광분야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서산솔라벤처단지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추진됐다.

한화케미칼에서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 서산테크노밸리 내에 조성된 서산솔라벤처단지는 16,735㎡의 부지에 연면적 8,474㎡, 지상4층 규모를 자랑한다.

시는 이번 준공식을 시작으로 서산솔라벤치단지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사업인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솔라벤처단지의 준공은 민 · 관이 함께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특화기술의 요람을 만들어낸 뜻 깊은 결과"라며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전략산업육성, 연구개발 혁신이라는 창조 경제의 취지가 살아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산솔라벤처단지가 대한민국 태양광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솔라벤처단지에는 올해 4월부터 이미 스마트기술연구소 외 8개사가 입주해 운영에 들어갔고 운영을 맡은 태양광 전문기업인 한화큐셀은 올해 말까지 나머지 13개 업체 모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산=김정한기자

클레어 펀리 대사, 머드축제 논의 · 머드체험 가져

보령머드축제 노하우를 전수받다

클레어 펀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 세계인의 축제인 보령머드축제장을 방문해 직접 체험하며, 내년 12월 뉴질랜드에서 열릴 '로토루아 머드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보령시는 22일 오전 김동일 시장이 클레어 펀리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접견하고 지난 6월 보령시와 로토루아시,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간의 미래 머드축제를 위한 국제 공동 이벤트 파트너십 협약 체결 내용을 자세하게 논의했다.

면담에서 김동일 시장과 펀리 대사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로토루아 머드축제에 사용하게 될 머드원액 수출 부분과 에어바운스 등 유료체험시설의 사용권, 축제기간 머드제품의 전시와 판매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김 시장과 펀리 대사가 함께 국내 · 외 관광객들과 어우러져 머드체험을 함으로써 생생한 현장 분위기 체득은 물론, 축제 운영의 전반적인 노하우에 대해 배우기도 했으며, 뉴질랜드 관광청에서는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에게 퀴즈를 통해 경품을 나눠주는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했다.

특히, 주한 대사가 축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뉴질랜드가 내년도 열릴 '로토루아시 머드축제'의 준비를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 지를 엿볼 수 있다.

클레어 펀리 대사는 "세계적인 축제의 반열에 오른 보령머드축제를 직접 체험해보니 얼마나 대단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내년도 뉴질랜드 '로토루아 머드축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니, 한국 국민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어려웠을 방문임에도 직접 보령의 머드축제장을 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통해 양국간 축제의 성공 개최는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 상생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보령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교육

보령시가 합리적인 가격의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의 대폭 확산을 위해 22일 대천웨스토피아에서 고품질 삼광벼 재배단지 회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영환)이 주관하고, 보령시가 후원한 이번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령사무소 김기철 주무관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교육과 만세보령 고품질 브랜드 쌀의 육성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도입 목적 및 배경, 기관별 역할, 추진경과 및 성과와 함께, 인증 신청 방법 및 심사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보령시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 추진에 발맞춰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GAP 인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가성비 극대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 쌀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FTA에도 적극 대응해 농가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란 HACCP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서 농산물의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물리 · 화학 · 생물학적인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관리제도이다.

보령 =김태선기자

공주시청 직원화합 명랑운동회 성료

교류-화합 체력향상 기여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직원 화합을 통해 직장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실시한 공주시청 부서대항 명랑운동회가 많은 추억거리를 남기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2월부터 6개월동안 진행된 이번 명랑운동회는 지난 21일 준결승과 결승전을 끝으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으며, 인사담당관 · 문화시설사업소 팀이 우승을, 공주시의회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명랑운동회는 공주시청 51개부서와 시의원, 지역언론인 등을 26개 팀으로 구성, 지난 2월 18일 첫 게임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일과 후 시간을 이용해 6개월 동안 토너먼트 25게임을 치렀다.

경기종목은 배구, 기차릴레이, 손바닥 마주쳐 넘어뜨리기 등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종목을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선정해 진행했으며, 시청 각 부서와 의원, 언론인 간에 교류와 화합은 물론 체력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명랑운동회를 주관한 양승희 인사담당관은 "행복한 직장분위기가 공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도하게 됐다"며, "일과 후 시간임에도 대다수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에 참여하고 마음껏 응원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하절기 집중 방역활동 추진

보령시보건소는 지난 11일 질병관리본부의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라 하절기 집중 방역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 보건소는 방역기동대 3개반을 편성해 주요 관광지와 취약지 등의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읍면동은 마을 및 집주변의 하수구, 축사, 빗물고인 웅덩이, 보일러실 등 주 모기 서식지에 대한 연막 및 분무 소독으로 일본뇌염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일본뇌염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는 물렸을 경우, 혈액내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사망률이 높으며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질병이다.

감염자의 95%는 무증상이지만 극히 드물게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언어장애, 판단능력?사지운동 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며,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아부터 만12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무료)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내 방충망 설치 및 모기장 사용 ▲ 야외 활동시 밝은 색 긴 옷 착용 ▲ 노출 부위에 모기 기피제 사용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가정내 청결유지와 준수사항 이행, 예방접종 등으로 일본뇌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령시 농기센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

헬기활용 항공방제 · 약제 지원 노동력 경감 도모

보령시 농업기술센터가 내달 10일까지 유 ·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미실시 지역은 공동방제 약제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강화와 농가의 노동력 경감에 큰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여건에 따라 확산이 빠른 벼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혹명나방 등을 중점적으로 방제하고 있으며, 지난 20일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항공방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안전교육을 갖고, 주의사항 등의 의견을 나눴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6개 읍면동 지역에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 7103ha 면적에는 유 · 무인 항공방제, 2952ha 면적에는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등 모두 1만 55ha에 대해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특히, 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는 약제 침투성이 높고 방제시간 감소, 단지별 실시로 효과가 뛰어나 참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공동방제 약제 지원은 모내기 전 상자처리제로 초기 병해충 발생 감소는 물론, 노동력과 방제비까지 절감시키고 있어 안정적 벼농사 재배에 기여해 오고 있다.

보령=김태선기자

우/리/동/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공주시, 관내 주요 계곡 등 현장 점검 나서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안전에 대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최근 공주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간부(부시장)가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유병덕 부시장은 지난 21일 사곡면 상원골 계곡, 마곡사 경내 계곡, 반포면 용수천 공암교 등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된 안전선,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에 배치 근무 중인 물놀이 안전관리요원들을 격려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였다.

유 부시장은 시민들께 "물놀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물놀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부주의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등 물놀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총 13개소에 안전관리요원 16명을 배치 집중관리하고 직원 비상근무를 시행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주=정상범 기자

2016 시책 이행점검 보고회

금산군, 군정현안사업 효율적 추진방향 모색

금산군은 12일부터 21일까지 신기영 금산군부군수 주재하에 2016년 하반기 업무계획, 군정 3대 중점과제, 시군 통합평가 지표 등 군정의 주요 시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2016년 시책 이행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 동안의 획일적인 보고체계에서 탈피해 부서별 업무 성격에 따라 행정지원, 특화시책, 문화?복지, 농업기반, 환경?건설, 산업기반의 6개 그룹으로 분류,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시책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섰다.

기존의 격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직원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격무부서에 대한 격려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신기영 부군수는 "직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큰 어려움이 없이 군정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군정 발전을 위해 부서간 협력 속에 현안사항들을 착실히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손광우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랑이 오네요 (SBS오전 8시30분)

선영과 집에 돌아온 상호는 해인을 보고 표정이 굳는다. 나 회장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던 해인은 아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자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세차장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꺼낸다. 한편, 선영은 민수가 호감 갖는 여자에 대해 궁금해하고 한편으로는 걱정하는데...

▲ 몬스터 (MBC 오후 10시00분)

영훈(서우진)의 사고를 낸 가해자가 지완(현우성)이라고 오해한 정원(우희진)은 승희(오미희)를 찾아가 자신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한다. 한편, 승희를 압박하기 위해 경주(강성미)는 지완의 사고 때 승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하는데...

▲ 내마음의 꽃비 (KBS2 오전 9시00분)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연희(임채원)는 자신을 병원으로 옮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 한다. 한편, 미성제과의 주 거래처인 화신백화점의 대표가 바뀌면서 일란(임지은)은 화신과의 재계약에 집중하고, 공장에서 생산된 빵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 꽃님(나해령)은 공장을 찾았다가 오래된 밀가루를 사용했음을 알게 되는데...

케이블 명화

▲ 간신 (OCN 오후 11시00분)

연산군 11년, 1만 미녀를 바쳐 왕을 쥐락펴락하려는 자가 득실거리니, 그야말로 간신들의 시대가 도래했다. "단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

연산군은 임숭재를 채홍사로 임명하여 조선 각지의 미녀를 강제로 징집했고, 그들을 운평이라 칭하였다. 최악의 간신 임숭재는 이를 기회로 삼아 천하를 얻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양반집 자제와 부녀자, 천민까지 가릴 것 없이 잡아들이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왕을 다스릴 힘이 내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왕 위의 왕이란 말입니다!" 임숭재와 임사홍 부자는 왕을 홀리기 위해 뛰어난 미색을 갖춘 단희를 간택해 직접 수련하기 시작하고, 임숭재 부자에게 권력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던 희대의 요부 장녹수는 조선 최고의 명기 설중매를 불러들여 단희를 견제한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간신들의 치열한 권력다툼이 시작되고, 단희와 설중매는 살아남기 위해 조선 최고의 색(色)이 되기 위한 수련을 하게 되는데…

▲ 귀여운 여인 (채널CGV 오후 2시20분)

매력적인 독신남 에드워드(Edward Lewis: 리차드 기어 분)는 재정이 어려운 회사를 인수, 분해해서 다: 파는 사업가다. 진행 중인 모스 기업 인수 구상 차 헐리우드에 사는 변호사 필립(Philip Stuckey: 제이슨 알렉산더 분)의 파티에 참석한 그는 필립의 차를 빌려 타고 투숙 호텔로 가던 중, 지리를 몰라 당황하다 손님을 기다리던 콜걸 비비안(Vivian Ward: 줄리아 로버츠 분)의 도움을 받는다. 스스럼없는 길거리식의 순진무구한 행동을 보이는 비비안에게 신선함을 느낀 에드워드는 그녀와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된다.

다음날, 모스기업의 창업주의 에드워드와의 면담을 요청하자 에드워드는 여자를 데리고 가라는 필립의 충고대로 비비안에게 일주일 동안 고용 파트너가 돼줄 것을 부탁한다.

에드워드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한 비비안은 드레스를 사기위해 로데오 거리에 갔다가 점원으로부터 천대를 받자 호텔 지배인 톰슨(The Hotel Manager: 헥터 엘리존도 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고, 호텔의 품위를 중:하는 톰슨은 비비안의 숙녀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3:50 태양의 제국
6:30 응박2015
8:10 브릭맨션: 통제불능 범죄구역
9:50 CSI:Cyber 시즌2
13:00 트랜스포머
16:00 아이스에이지4:대륙이동설
17:50 인서전트
20:10 38 사기동대
23:00 간신

◈ 채널 CGV
2:40 갱스터스쿼드
4:40 컨트랙티드
6:10 타이타닉
9:40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11:20 무비버스터즈
12:40 빅게임
14:20 귀여운여인
16:40 루퍼
19:00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22:00 폭스캐처

◈ Mnet
6:50 언프리티 랩스타2
8:20 Mnet SHOW ME THE MONEY 5
10:10 언프리티 랩스타
11:10 소년24
12:5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3:40 랜선친구 아이오아이
14:40 Mnet SHOW ME THE MONEY 5
17:10 Daily Music Talk (SMS)
18:00 슈퍼레이스와 함께하는 M SUPER CONCERT
19:00 너의목소리가 보여3
20:30 Live on M (SMS)
21:30 음악의 신 2
22:30 언프리티 랩스타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10:00 2016 메이저리그
14:00 2016 메이저리그
17:00 2016 메이저리그 선수별 하이라이트
17:30 코리안메이저리거 라이브
18:00 메이저리그 명장면 TOP50
18:30 2016 메이저리그 선수별 하이라이트
19:00 야시장

◈ SBS 스포츠
7:34 2016 KBO리그 주간명승부 BEST
10:22 2012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
11:16 2014인천 광역시장배 당구대회
12:37 극한의 도전 익스트림스포츠
13:11 정글의법칙in 파푸아뉴기니
17:11 주간야특특집
18:10 2016 베이스볼S
19:08 주간야구

◈ 온스타일
7:20 이효리의 X언니
8:25 온스타일라이브: 기부티크
9:25 겟잇뷰티 2016
10:30 겟잇뷰티셀프
10:50 처음이라서
12:40 매력티비
13:10 이효리의 소셜클럽 GOLDEN12
14:05 겟잇뷰티 2016
15:10 효연의 백만라이크
15:35 오늘 뭐먹지?
16:45 매력티비
16:55 현장토크쇼 택시
17:45 더 바디쇼
18:35 겟잇뷰티셀프
18:55 유미의 방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통통
21:00 뉴스만만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0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라인 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3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0:30 대박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아침, 메디컬365
11:00 세계로가는 아시아헌터
12:00 와일드 24시: 고요한 낙원, 남태평양
13:00 <와일드 스리랑카> 1부. 느림의 미학
14:00 <와일드 스리랑카> 2부. 시간이 멈춘 평원
15:00 <와일드 스리랑카> 3부. 새로운 공존
16:00 TV 동물농장
19:00 타이페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
20:00 나미브 사막의 코끼리
21:00 아시아헌터

음악 · 애니

◈ MBC 뮤직
7:00 Good Morning MBC MUSIC
8:10 여자친구의 어느 멋진 날
9:00 쇼타임 마마무&여자친구
10:00 Weekly M CAST
11:00 피크닉 라이브 소풍
11:30 MBC MUSIC HIT SONGS
12:00 마이 리틀 텔레비전
13:30 복면가왕
15:20 라디오스타

◈ 애니맥스
7:00 또봇 탐험대- 전설의 기사 기가세븐
8:00 극장판 아따맘다 3D:엄마는 초능력자
9:00 헬로 카봇3
10:00 레전드 히어로-삼국전
11:00 터닝메카드W
12:00 안녕 괴발개발
13:00 포켓몬스터 XY&Z
14:00 라바 무지개 특공대
15: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16:00 이웃집 외계인 지그&재그

◈ JEI 재능방송
5:00 Rolly Rolly, Show me the Story
6:00 출동! 슈퍼윙스
7:00 헬로카봇3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9:00 놓지마정신줄
11:00 토리코
13:00 닌자고대 스카이 해적
14:00 개구리중사케로로
16: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7:00 헬로카봇3
18:00 놓지마정신줄
19:00 토리코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11:50 안녕 우리말 12:00 KBS뉴스12 1:00 여름특선 행복한지도 1:30 여름특선 영상앨범 2:00 2016 서울 국제 유스 양궁 페스타 3:55 튼튼생활체조 4:00 4시 뉴스집중 5:00 KBS 뉴스5(수화방송) 5:30 동물의 세계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 자칼럼 우리사는세상 7:00 KBS 뉴스7 7:35 우리말 겨루기 8:25 별난가족 9:00 KBS 뉴스9 10:00 가요무대 11:00 KBS 뉴스라인 11: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6:00 이욱정PD의 자연 담은 한끼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 뉴스타임 9:00 TV소설 내마음의 꽃비 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이웃집 찰스 12:00 뷰티풀 마인드 2:00 KBS뉴스타임 2:10 사람과 사람들 3:30 TV 유치원 4:00 여유만만 5:00 대국민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6:00 2TV생생정보 7:50 여자의 비밀 8:30 2016 리우올림픽 특집<리우, 우리 별을 꿈꾸다> 8:55 수상한 휴가 10:00 뷰티풀 마인드 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6:00 MBC뉴스투데이 7:50 좋은 사람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1: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2:00 MBC정오뉴스 12:20 통일전망대 1: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2:00 키즈 사이언스6 3:00 MBC뉴스 3:10 똑?똑! 키즈스쿨 3:55 깨미탐험대 4:25 워킹맘 육아대디 5:00 MBC이브닝 뉴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15 다시 시작해 7:55 MBC뉴스데스크 8:55 워킹맘 육아대디 9:30 리얼스토리 눈 10:00 몬스터 11:10 MBC스페셜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8:30 사랑이 오네요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경제 11:0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12:00 SBS 12뉴스 12:50 웃음을 찾는 사람들 2: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00 3시, 뉴스브리핑 4:30 꾸러기 탐구생활 5: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톡톡 5:30 SBS뉴스퍼레이드 6:05 생방송 투데이 7:20 당신의 선물 8:00 SBS8뉴스 8:55 생활의 달인 10:00 닥터스 11:15 셀프디스코믹클럽 디스코	6:00 충청남도영상소식 6:25 대한늬우스 6:30 문학의 향기 7:00 은혜로운 말씀 7: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8:00 센셔뉴스 8:30 주정민의 스페셜 토크 9:00 특별한 대덕의이야기 10:00 다시보는 문화영화 10:30 한국의 섬 11:00 다이어트 미 12:00 굿뉴스 12:25 대한늬우스 12:30 해피쿡 맛있는 대화 1:00 다큐희망 1:30 메디컬 인 1:50 충청남도영상소식 2:00 반려동물 프로젝트 동행 3:00 굿뉴스 3:30 생생민원통 4:00 김정선의 파워노래교실 5:00 CMB 여름특집 한국의 섬 장자도 편 5:30 옛길, 시간을 걷다 6:00 뉴스와이드 6:30 해피쿡 맛있는 대화 7:00 특별한 대덕의 이야기 8:00 문학의 향기 8:30 로우 바리스타 9:00 뉴스와이드 9:30 열린미디어 시청자세상 10:00 다이어트 미 11:00 다시보는 문화영화 11:30 한국의 섬	6:10 EBS 특별기획 통찰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7:30 로보카 폴리 7:45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8: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8:45 코코코 다코 9:00 캐니멀 9:30 원더볼즈 9:40 라이브 토크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세계테마기행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12:40 지식채널 e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5:35 꼬마기사 마이크 15:5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 16:45 딩동댕 유치원 16:50 빵빵 요리버스 17:05 딩동댕 유치원 17:30 로보카 폴리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톡! 톡! 보니 하니1 18:05 플라워링 하트 18:20 톡! 톡! 보니 하니2 18:25 두키 탐험대 18:40 톡! 톡! 보니 하니3 18:45 똑똑! 우리 몸X파일 18:55 톡! 톡! 보니 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 테마 기행

안산시 · 아산시 '프로축구단 창단 의향' 밝혀

프로축구단 창단 의향서, 연맹에 공식 제출

안산시(시장 제종길)와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프로축구단 창단 의향을 밝혔다. 제종길 안산 시장과 복기왕 아산 시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축구단을 창단 발표와 함께 '프로축구단 창단 의향서'를 연맹에 공식 제출했다.

안산과 아산시 모두 프로축구단 창단 발표를 통해 "프로축구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해왔으며 축구를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염원이 더해서 창단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목표로 지난 3년간 K리그 챌린지에서 안산 무궁화 경찰청을 운영해 왔으며 2017년부터 시민 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안산의 화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구단의 재정수립, 선수단 수급 및 프로축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종길 안산 시장은 선수단 수급 방안에 대해 "울산현대미포조선팀은 실업 최고의 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모기업과 동일 연고지에 이미 프로팀이 있어 프로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던 미포조선을 유치한다면 시민구단 창단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K리그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더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미포조선과 어느 정도 공감대는 서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유일하게 프로축구단이 없는 충청남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아산시는 시도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 경찰청 무궁화 축구단, 청춘FC 등 프로축구단의 창단과 유치에 대해 여러 차례 진지하게 검토해왔고 안정적인 창단 여건이 갖춰진 경찰청 무궁화 축구단을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은 시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축구단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복기왕 아산 시장은 "3월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사랑을 받는 도내 유일의 프로축구단으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프로축구단 창단을 통해 아산시가 겨울 스포츠인 여자농구와 함께 일 년 열두 달 프로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주목받는 스포츠 도시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연맹은 안산, 아산시와 협의해 신생구단 창단과 무궁화 경찰청 축구단의 성공적인 이전 정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아산서 열려

2016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이하 꿈나무대회)가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6일 간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열전에 돌입한다. 리우올림픽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체육꿈나무들의 미니올림픽'이 열린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탁구를 시작으로 육상, 수영, 유도, 체조, 테니스, 빙상 등 7개 종목에 초등학생 유망주 3,500여 명이 출전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친다.

꿈나무대회는 민간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다. 교보생명은 체육꿈나무를 조기에 발굴 · 육성하고 기초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8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2년째 이 대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은 총 81억 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꿈나무체육대회를 거쳐간 어린 선수는 12만 명이 넘는다. 이 중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350명에 이르며, 이들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 수만해도 140여 개에 달한다. 메달리스트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탁구의 주세혁 · 양하은, 유도의 안바울 · 곽동한, 수영의 원영준 · 백수현, 체조의 박민수, 육상의 윤승현 등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을 빛낼 국가대표 40여 명도 꿈나무대회 출신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유도의 김재범 · 최민호를 비롯해 빙상의 이상화 · 심석희, 체조의 양학선, 수영의 박태환, 탁구의 유승민 등 꿈나무 출신 선수들은 국제적인 스포츠 스타로 성장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한 몫 톡톡히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시 야외 물놀이장 '북적 북적'

작년 5만여명의 시민 방문 이어… 올해도 서산의 대표 피서지

서산시에서 여름철 가족단위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서산시 야외 물놀이장이 작년 5만여명의 시민이 방문한데 이어 올해도 서산의 대표 피서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장 이후 첫 주말을 맞아 야외 물놀이장을 찾은 피서객이 주말 하루 평균 5천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산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야외 물놀이장은 전체면적 830㎡, 수조면적 600㎡ 규모로 한번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수조 깊이 60cm로 조성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야외 물놀이장에는 ▲조합놀이대 ▲파고라 ▲목재데크 ▲간이샤워장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하루에 한번 물을 교체하고 바닥청소도 2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물놀이장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요원 7명을 배치 물놀이전 건강체조와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세이프 존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태안, 홍성, 당진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서산시 야외 물놀이장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 야외 물놀이장이 17만 4천여 서산시민의 여름철 피서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야외 물놀이장은 충청남도 내에 유일한 시설로 민간 워터파크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충남대, 삼성드림클래스 여름방학 캠프 개최 읍.면.도서.산간지역 저소득층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삼성드림클래스 여름캠프가 충남대에서 진행된다. 삼성드림클래스 사업단은 22일 오후 4시,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2016년 삼성드림클래스 여름방학 캠프 환영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캠프를 시작했다.

'충청남도유도회' 초대회장에 용인대 조용철 교수 취임 용인대학교 유도경기지도학과 조용철 교수는 7월 23일 충남 천안 세종웨딩홀 6층 컴퍼런스홀에서 열린 '충청남도유도회 창립 초대 조용철 회장 취임식'에서 충청남도유도회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생명나눔 헌혈봉사' 실시 지난 21일,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 주차장에서 생활자원처리장, 생태곤충원, 건강문화센터등 시설관리공단직원 30여명이 참여하여 생명나눔 헌혈봉사를 실시했다.

2016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 성과보고전 개최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는 지난 7월 23일 공주 원골 야투자연미술의 집에서 2016년 상반기 야투자연미술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성과보고전을 개최했다.

청양군 청남면 제3·4대 명예면장 이취임식 열려 지난 22일 주민자치센터에서 명예면장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석화 군수, 이장, 기관단체장 등 6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이임하는 제3대 윤석찬 명예면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대전충남병무청-노블리안치과 업무협약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지난 22일 노블리안치과(대전 관저동 소재)와 병역명문가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리더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지역 리더들 축하"

한밭대, 제32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 22일 오후 4시 한밭대 S5동 다목적홀(206호)에서 '산업대학원 제32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송하영총장, 심재명 산업대학원장, 나병철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장, 김만구 한밭대 총동문회 회장 등 내·외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글로벌 리더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지역 리더들을 축하했다.

아울러, 이날 수료식에서 최고경영자과정 32기 수료자들은 대학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에 수료한 최고경영자과정 32기는 김숙자 회장을 대표로 총 71명이며, 지난 3월 10일 입학 이후 약 6개월간 사회 각계 저명인사 초청 특강과 국내·외 연수를 통해 미래지향적 경영전략과 자기개발은 물론 수료생간 친목도모와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32기 과정 운영에 특이한 점은 여성원우의 비율(45%)과 두드러진 활동이며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밭대 최고경영자 과정은 6개월 공개강좌 과정이며, 2000년 9월 제1기생 72명 모집을 시작으로 32기까지 2600여명의 최고경영자를 배출했고 특히, 수료 후에도 총동창회 주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꾸준한 만남과 끈끈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있다.

이정복기자

공주대학교 공과대학-3개 마이스터고등학교

일학습병행제 사업 확산 위한 MOU

공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희수) 공과대학(학장 최병관)은 지난 7월 15일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수원하이텍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와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확산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했다.

각 체결식에는 공과대학의 최병관 학장을 비롯하여 이동주 부학장, 김승겸 듀얼공동훈련센터 총괄교수, 각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취업지원관 등 양 교의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매 체결식에서 양 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확산을 위한, 협동체제 확립, 고졸 취업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취업 및 학위과정을 연계한 우수기업 공동 발굴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최병관 공과대학장은 "일학습병행제 취지에 맞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한 인재 육성이 중요하며, 금번 협약을 통해 양교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비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각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장 또한 "일학습병행제가 학생들의 요구 및 사회적 요구에 잘 부합되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굴다리식품슈퍼, 온양2동과 후원 협약

저소득가구를 위해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협약체결

아산시 온양2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강준구)은 지난 21일, 굴다리식품슈퍼(대표 최춘식)와 저소득가구를 위해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굴다리식품슈퍼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저소득가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후원하게 되고, 또한, 김치 등 밑반찬 현물후원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최춘식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것을 주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며, 보다 다양한 저소득층의 가구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단장은 "자원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야 다양한 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우리 지역의 자원 발굴에 한 발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356-B(대전)지구

제39·40대 총재 이·취임식 개최

국제라이온스협회 356-B(대전)지구 제39·40대 총재 이·취임식이 22일 호텔 ICC에서 대전지역 각급 기관장 및 라이온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송경자 총재는 지구기 이양에 이어 가진 취임사에서 '행복한 미소'의 운영주제를 바탕으로 회원분들이 주인공인 356-B지구를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는 인사를 했다. 송경자 총재는 이날 이취임식에 이어 제1차 지구임원회를 주재하고 이어 지구임원단과 현충원 참배의 공식일정을 진행하였다.

김정환기자

태안 안면고, 사제동행 향토 탐방 체험

안면고(교장 김형근)가 21일과 22일 양일간 사제동행 향토 탐방 체험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사제동행 향토 탐방 체험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지역을 탐방하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전을 통해 정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3학년 학생 전체와 1,2학년 또래상담 멘토 멘티 학생 등 61명이 참가해 안면도 일대 두산 염전, 큰골, 안면도 자연 휴양림, 조개산으로 이어지는 총 13㎞의 길을 걸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해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태안=김정한기자

전민동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유성구새마을부녀회(회장김경옥) 산하 전민동새마을부녀회(회장 김영경)는 지난 20일 이른 아침부터 새마을지도자 15명이 홀로노인 및 틈새가정 40세대에 여름입맛을 살리는 배추김치, 야채 초절임, 삼계탕 3종을 준비해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69회 청양아카데미

혜민스님 초청 강의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27일 청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식 습득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청양아카데미'를 개최한다.

69회째를 맞은 이번 청양아카데미는 불교계의 '힐링멘토'로 유명한 혜민스님이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마음 치유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지식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저명 강사를 초청해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 2005년부터 청양아카데미를 운영해 문화·예술적 환경이 열악한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청, 사회적 이슈와 변화, 삶의 지혜와 우수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에 기여해 오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한남대 학생들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 상금 전액 기부

한남대 학생들이 최근 '2016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에서 수상하고 받은 상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한남대 학생 3명으로 구성된 클로버팀(남태욱 문예창작3, 황주상 사학3, 강원모 기계공학2)은 지난 10일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대학부 4위(G1강원민방 사장상)를 차지해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특히 학생들은 지난 20일 대전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이 대회 상금 100만원 전액을 독거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클로버팀 학생들은 평소 '더불어 사는 삶'에 관심이 커 프레젠테이션을 이 주제로 준비하던 중 팀원 강원모 학생이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면 더 의미 있을 것이라며 상금 기부를 제안했고, 다른 학생들도 적극 동의했다.

학생들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과 협의해 기부금으로 연탄과 생필품 등을 구입, 독거노인들에게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기 고

부정부패와 공직기강 해이는 사회악이다

김 헌 태
논설고문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여기에다 처가 부동산의 부적절한 거래 등 잇단 의혹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에다 심지어 작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당시 메르스 안전지대인 외국으로 피신했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물론 의혹제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안이 명료하게 밝혀 지지고 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심지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도 공짜주식 매입에다 고급승용차를 받지 않나 해외가족여행까지 넥슨의 지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비리의 양파껍질은 벗겨도 계속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이런 수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부패관료들에 관한 한 말이다. 그동안 이런 비위행위에 대한 사회적 질타는 무수히 있어왔다. 그러나 요즘 드러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배신감이 극치를 이룬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것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이런 사람이 불법과 범법자를 다루는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해온 것인지 조차도 궁금하다. 행여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정치권과 언론, 수사기관들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의 연계성을 추적되고 있다. 처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 여기에 더해서 역시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등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현재 제기된 의혹과 거짓 해명만으로도 민정수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도대체 쏟아지는 의혹 속에서도 억울하다는 듯이 이른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다. 만약 결백한데도 비리의 혹이라고 한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무고한 사람을 재단하는 악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왜 이렇게 침을 튀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 싶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진경준 검사장의 경우도 처음에는 혐의가 없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결론은 구속이었고 비위행위는 더욱 추가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먹을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약인지 쥐약인지 모르고 먹은 모양이다. 탈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공든 탑이 고스란히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모습을 국민들은 그대로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그렇게도 도덕불감증이 심해서야 말이 되는 가 반문하지 않을 없다. 수준이하이다.

이런 판국에 이제는 프로야구 선수들의 승부조작사건까지 들춰져 국민들은 그야말로 찜통더위와 분통더위로 정말 몸도 개운치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말이 아니다. 아니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에까지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원정 도박사건에까지 이어져 선수생명이 끝나는 불행한 사태를 국민들은 또 보고 있다. 어찌 이 나라는 이처럼 부정부패의 썩은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공인들이 연루되어 개망신을 자초하고 있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스포츠의 승부조작 문제는 프로야구 뿐 만 아니라 농구, 축구에도 전례가 있는데

사건이 터지면 쏙 들어가 잠잠하다가 잊을만하면 또 터지며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단호하게 일벌백계로 다루어야 한다.

또 국민들은 헷갈리게 하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연예인들의 성폭행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성도덕의 문제가 세간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뚱딴지같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을 경천동지,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도대체 뭐가 뭣인지 모르는 비리와 도덕불감증의 행태가 공직자가 됐건 대기업 총수가 됐건 만연되어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하루를 힘겹게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이자 국민들뿐이다. 정신질환자를 빙자해 혈세를 동원해 초호화판 병실을 꾸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하루 외래진료비 2,770원, 밥값 3,390원으로 한 끼니를 때우게 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비인권적인 차별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한심하고 상반되는 복지행정이 오버랩이 되어 다가온다. 그래놓고도 민간병원이 차별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사오정 같은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이 시간도 눈물짓는 정신질환자들의 모습이 마냥 안타깝기만 하다. 모든 곳에서 정상성을 잃어가는 이런 모습으로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정신을 바로 세우는 정신개혁운동과 공직기강 확립운동이 절실하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른바 보건복지부나 여타 갑질 세력으로 둔갑한 공직자들의 오만불손한 행위를 타파하기 위한 범국민 감시기구의 상설화가 절실한 요즘이다. 부정부패와 공직기강 해이는 사회악이기 때문이다.

사 설

학교폭력 항구적 대책 필요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줄고 있지만 초등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니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3월21일부터 4월29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재학생 456만명 중 423만명이 참여해 지난해 9월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 관련 경험에 대해 답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3만9천명, 0.9%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조사 때보다 0.1%포인트, 5천명 줄어든 수치로, 2012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감소가 전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착시 현상'이란 지적에 대해 전체 학생 수 감소율(-4.0%)이나 조사참여 학생 감소율(-3.8%)보다 피해 응답 학생 수 감소율(-11.4%)이상대적으로 큰 만큼 피해 학생이 주는 추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봤다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2.1%(2만6천400명), 중학교 0.5%(7천100명), 고등학교 0.3%(5천200명)였다.

지난해 1차 조사 때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씩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0.1%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전체 피해학생의 67.9%를 차지했다.

특히 초등 4학년의 피해 응답률이 3.9%로 5학년(1.6%), 6학년(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부는 중·고교보다 초등학교에서의 피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사증후군 발생위험 줄여야

수면시간이 부족하면 대사증후군 발생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낮은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 중 세 가지 이상의 위험인자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자칫 가볍게 보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죽음을 부르는 5중주'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강원대 춘천캠퍼스 간호학과 박현주 교수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박 교수팀이 성인남성 799명, 성인여성 780명 등 근로자 1579명중 교대근무 여부 등 근로형태와 수면시간을 함께 고려해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다.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5%로 나타난 반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24.4%로 집계돼 발생 위험이 1.6배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교대근무와 수면시간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는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다만 연구팀은 교대근무·주간 근무 등 근무형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3시간으로, 미국수면재단(NSF)에서 권고하는 하루 적정 수면시간 '7~9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2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인 남성의 비만·고지혈증·고혈압 유병률이 여성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자 수첩

온양의용소방대의 위기

리 량 주
아산 주재 기자

온양의용소방대는 지금부터 약 70년전인 광복 다음해인 1946년에 발족됐다. 인간의 나이로 고희(古稀)인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의소대가 지난달 24일 관리감독 부서인 아산소방서로 부터 해체 통보를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온양의용소방대장이 아산시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자리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됐다. 임기의 무리한 연장과 조작된 대원 추천서 등이 발각되면서 사태는 더욱 미궁에 빠졌다. 추대방식의 의소대장 천거가 몇몇사람의 주장으로 경선으로 진행됐고, 당선자의 횡포로 상대후보 지지자들의 강제 퇴출 등의 불협화음이 반복적으로 야기됐다.

동료를 음해하고 선배들을 몰아내고 후배들을 내쫓는 3류소설에서나 볼 법한 몰지각한 집안싸움을 자행하고도 시민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봉사단체로서 아산시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온양의용소방대가 자부심은 커녕 자괴감에 빠졌다. 70년 전통의 온양의용소방대를 무너뜨린 원흉이 누구누구 조상이라는 오명을 대대손손 이어가지 않으려면 이제 화해하고 단결해야 한다.

이제 더는 정치적으로 또는 사적인 개인 단체로 착각하지 말고 아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순수한 봉사단체로 지역사회에 일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래본다.

또한 아산소방서도 온양의용소방대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강압과 군림의 자세보다는 사랑과 정성을 갖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해 본다.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 여러분 안전의 보루입니다

기 고

배 한 욱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감

경찰청에서는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TV·언론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지만 아산경찰서 2016년 상반기 신고 집계에 의하면 신고 건수의 약 54%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출동 신고로 접수되어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신고출동을 줄이고 치안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경찰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12년부터 182경찰콜센터를 개설하고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사항(교통과태료·면허·기초질서범칙금 등)을 연중 24시간 상담해주고 있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올바른 신고(민원신고 182, 범죄신고 112)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실제 긴급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치안강국의 면모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칼 럼

인성교육의 기초는 '밥상머리' 교육

이 창 호
이창호스피치리더십연구소 대표

우리는 인성교육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여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윤리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스마트폰을 올바로 쓰자'는 가족 프로젝트다. 요즘은 아동·청소년, 성인할 것 없이 모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산다. 그만큼 전 사회적인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면 심각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기도 할 정도이다.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끄고 가정을,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이용습관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학생이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이 바로 선 학생으로 성장해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한계가 있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도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요컨대 인성교육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가정·학교·사회·정부가 동참하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은 정부가 모델이 될 만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범사회적인 인성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최대 인성교육기관인 조셉슨연구소의 마이클 조셉슨 박사는 "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학교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사회의 경계를 허무는 광범위한 기초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 인성교육 시스템으로는 부모교육,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체험학습, 생활공동체 교육, 청소년인성진흥운동, 청소년 영웅인문학(세종대왕, 이순신장군, 안중근의사)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교육에서 내실 있게 실시되기 어려운 독서상담, 아동. 청소년 표출훈련, 미디어 절제 교육, 국토사랑행진, 평화와 나눔, 교육연극과 인격교육, 마을 직업 활동, 숲교육, 가족한마당, 품성교육, 예술창의 융합 수업, 인성표출캠프, 청소년 프론티어 봉사활동 등 심지어 올바른 식사매너와 건강관리도 인성교육의 범주 안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大學」 제7장 <正心修身>편에 보면, 心不在焉이면 視而不見하며 聽而不聞하며 食而不知其味니라 <심불재언이면 시이불견하며 청이불문하며 식이불지기미니라>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우리의 인성교육은 다양한 것을 느끼고, 깊이 생각한 후 표출하고, 마음 둘 곳을 찾아 푸른 꿈을 춤추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인성교육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는 공교육의 한계 및 대한민국 교육문제의 교육시스템을 탈피하려는 피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 인성회복을 위해 매진해 온 대안아카데미나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의 역할과 교육적 효과를 나누는 장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인성교육이 범국민적인 프로젝트로 뿌리내릴 수 있다.

오늘의 소사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 현 정 | 회 장 김 성 구 | 편집국장 한 대 수 |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주)중부인쇄산업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주식회사 대생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 순 용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Yesan Forestry Cooperative